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601

2008年8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漱石『마음(こころ)』연구

崔雪延

２００８年　８月
教育學碩士(日語教育)學位論文

漱石『마음(こころ)』연구

― 선생님의 죽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崔　雪　延

漱石『마음(こころ)』연구

— 선생님의 죽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kokoro』

— Centering on Death of Teacher —

2008年　8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崔　雪　延

漱石『마음(こころ)』연구

指導敎授　曺　營　錫

이 論文은 敎育學碩士(日語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8年　4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崔　雪　延

崔雪延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教 教授　　金 仁 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教 教授　　曺 營 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教 助教授　金 熙 照　　印

2008年　6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ABSTRACT · · ·

결론 · · ·

ABSTRACT

A Study on the 『kokoro』
— Centering on Death of Teacher —

Seol-Yeon Choi

Advisor : Prof. young-suk Cho Ph.D.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Natsume Soseki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writers of Japanese modern literature. There are many national studies on him, among which studies on 『kokoro』 are the most. This study examines the death, a main theme of 『kokoro』 , centering on the teacher.
Guilt which forms a large frame of the teacher's death and Meiji's suicide focused on personal aspects such as ego and agony of intellectuals. This study analyses the reason K was betrayed in respect to the death caused by guilt to K, and identifies the meaning intended by the author behind the story.
First, this study identifies the betrayal based on the surrounding conditions of the teacher and K, environment of each, and what relations there are between them and death of the teacher. As the betrayal against K lies on the environmental background of the teacher and situation at that time rather than personality of the teacher, the teacher was

inevitably to follow the wicked nature that does not match with his life and moral value.

Second, Meiji was identified as an entity that exists outside the mind of the teacher. The spirit of Meiji made the teacher who intended to acquire freedom through death belong to the society of Meiji. Suicide to the spirit of Meiji means that he was united with the society he betrayed for his whole life into one, that is, the first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Finally, this study speculates the critical view against the spirit of Meiji as another intention Natsume Soseki intended to show through his story. The teacher stuck to the regulations required by the spirit of Meiji while he tried to establish his individualism that respects freedom, independence and ego. This study concludes as follows: that he suicided to the spirit of Meiji while he wished freedom means he was reverted to the spirit, in which Natsume Soseki showed his critical view through a young man (I as watakusi).

In studies on『kokoro』, various points of view on the death of the teacher have been analysed. However, if life and thoughts of the teacher are viewed as one rather than part, one flow can be identified. The teacher's suicide was not caused by any one of suicide of K, moral and chivalry spirit, historical background. They are just part of it and the teacher continued to follow step-by-step route toward death.

서 론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이하 '소세키'로 표기)는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평가받는다. 특히, 그의 초상화가 1984년부터 2004년까지 20년 동안 천 엔(円)권 지폐에 들어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근대문학의 작가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국민작가의 반열에 올라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따라서 그의 문단 데뷔작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가 연재되기 시작한 1905년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이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내의 연구만 들어보더라도 소세키 문학에 관한 논문이 이미 수 백편에 달한다. 권혁건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의 일본문학 연구물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가 소세키에 관한 연구이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것이『마음(こころ)』(이하『마음』으로 표기)에 관한 연구이다.[1)]

다음으로『마음』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본다. 작품이 발표된 이후, 동시대 비평으로는 고미야 도요타카(小宮豊隆), 모리타 소헤이(森田草平)를 비롯한 소세키 문하생에 의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비평은 '도덕적 소설'이라고 하는 교양주의적 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여기서 벗어나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45년 이후부터다. 이노 겐지(猪野謙二)는 「漱石における自我の自覚と崩壊―「心」を中心にして―」에서 『마음』의 문제를 메이지시대와의 관계 하에서 해석하려는 역사사회학적 관점으로 파악하였다. 5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라 마사히토(荒正人)의 「漱石の暗い部分」, 히라노 켄(平野謙)의 「暗い漱石」의 등장으로 '어두운 소세키'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60년대는 소위 작품론의 시대로, 오치 하루오(越智治雄)가 「こゝろ―夏目漱石―」에서 인간존재의 위태로움을 지적했고 사토 야스마사(佐藤泰正)가「夏目漱石「こゝろ」」에서 불가사의한 것을 지적했듯이 존재론적인 시각에서의 작품해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는 이시하라 치아키(石原千秋)의 「『こころ』のオイディプス―反転する語り」와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의 「『こころ』を生成する心臓」가 등장함으로 다양한 시각에 의한 본격적인 『마음』연구가 시작되었다.[2)]

국내의 『마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1974년 오경자의 『마음』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여편 이상이 발표되었다. 이들 논문의 주제를 살펴보면,

---

1) 권혁건,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와 한국』, 제이앤씨, 2004, pp.251-294. 참조
2) 斉藤英雄、「こゝろ」(『國文學』, 學燈社, 1994), pp.158-159. 참조

「죽음」,「메이지(明治)정신」,「자기본위」,「윤리」 등 다각적인 시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는 「죽음」이다.[3)]

『마음』연구의 주요 테마인 '죽음'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인공 선생님(先生-이하 '선생님' 으로 표기)의 죽음을 K에 대한 죄의식으로 보는 연구자들은 그 자살동기를 유교적 · 무사도적인 사상이 형성되어있는 선생님의 내면적인 부분에서 찾고, 선생님의 죽음을 메이지 시대정신에의 순사(殉死)로 보는 연구자들은 한 시대의 종언(終焉)이라는 외면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오랜 세월동안 연구되어온 '죽음'이라는 주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고모리 요이치가 1995년에 발간한 『漱石を読みなおす』를 시작으로 『마음』을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주요 연구를 토대로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원용하여 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마음』을 분석해보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

기존의 많은 소세키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마음』은 불가사의라든지, 수수께끼 같아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조영석이 「마음은 자신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본적이 없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그 실체에 대해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언설이 난무할 뿐」[4)]이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위와 같은 연구자들의 의견대로 『마음』을 대할 때마다 논자(論者)가 불가사의하게 느낀 것은 선생님이 자책과 참회의 심경을 지나칠 정도로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자의 의문은 선생님의 죽음의 원인이 전적으로 K에 대한 죄책감 때문으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결국 작가가 작품 표면에 내세운 주제 이외의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부연하면, 작품에서 K 죽음에 대한 선생님의 자책감과 죄의식이 그가 처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선생님의 K에 대한 죄책감과 선생님이 자신의 자살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메이지 정신에의 순사의 관련성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이 두 가지 관점은 결국 선생님이라는 일개인의 에고(ego)나 지식인의 고뇌 등 개인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메이지 시대정신을 다뤘다 해도 최종적으로 개인적 측면에 귀속되는 관점에서 사회배경-메이지 시대정신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가지 의문점을 제시한다.

첫째, 과연 선생님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의 K에 대한 배신과 숙부의 선생님에 대한 배신행위를 같은 기준의「악」으로 봐야 하는가? 기존의 많은 연

---

3) 권혁건 編, 『나쓰메 소세키 작품『마음(こころ)』연구』 제이앤씨, 2003, pp.22~23. 참조
4) 조영석, 「소세키의 『마음(こゝろ)』연구 - 작중인물의 無名性과 「선생님과 유서(先生と遺書)」의 문제를 중심으로」(韓國日語日文學會 2006), p.193

구자들은 K를 배신한 선생님의 행위의 원인을 그의 인물의 성격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즉, 이들 연구는 선생님의 자살 원인을 그의 자기파괴적인 성향과 비사교적이고 반사회적인 성격에서 찾고 있다. 이는 단지 사람, 즉 삶이라는 무대 위에 서있는 배우 개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무대 장치, 무대 감독, 그 외에 다른 배우들의 영향은 무시해버리는 것과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선생님의 자살을 단순한 개인적 측면의 에고(ego), 고독감과 메이지정신에의 순사로만 해석하기에는 무언가가 결여된 느낌이 든다. 선생님을 키워내고 선생님이 살아왔던 「시대」는 그의 전인격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 시대의 가치관과 의무, 그리고 도덕적 잣대를 부여한다. 이러한 제도 자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들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파악하기에는 난해하다. 그래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시대」라는 사회적 사항을 개인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특성의 피상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이 제도를 개인적 특성의 한 측면으로서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는 메이지정신을 선생님의 자살 원인의 직접적인 영향자로서가 아닌「순사의 대상」이라는 측면으로만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작자 소세키가 『마음』에서 인간의 에고(ego)와 절대 고독이 야기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 또 하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자는 그것을 주인공 선생님이 순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메이지 정신」이라고 파악했다.

2. 연구방법

『마음』은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관을 문제 삼고 있다. 즉, 현대인의 병폐라 할 수 있는 에고이즘(egoism - 이기주의)의 문제성과 인간에 대한 회의 및 혐오, 그리고 자기 부정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의식과 고독감을 다루고 있다. 또한,「메이지」라는 시대정신을 일본 근대 지식인의 상징인 주인공 선생님의 삶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이들 사항들이 선생님의 자살로 귀결되고 선생님의 죽음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선생님의 자살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명제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움베르트 에코[5]는「화자(話者)는 자기 작품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화자가 해석

5) 움베르트 에코(Umberto Eco) - 1932년 이탈리아 안렉산드리아 태생의 대학자이며 작가. 그의 처녀작인 『장미의 이름』은 중세 수도원의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소설로서, 작품 속에 논리학, 신학, 기호학, 철학,

하고 들어가는 글은 소설이 아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수많은 해석을 창조해야 하는 글이기 때문이다」[6]라고 말한다. 소세키도 소설에 있어서 열개를 일부터 열까지 쓰는 것은 명료함에는 틀림없지만 교과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작(著作)을 음미한다고 한 이상 열 중 8할은 작가가 서술하고 나머지 2할은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7] 따라서 소세키의 소설은 이야기 전개과정에서도 종결 후에도 반드시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こころ』는 이러한 특징이 현저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이것은 선생님이 「나(私)— 이하 '나(私)'로 표기」를 통해 항상 상대화 되어있고 특히 이미 상대화 되어있는 선생님에 의해 그려지는 K는 다시 상대화되기 때문에 독자는 선생님과 K에 대한 「진실」을 더더욱 상상력을 발휘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작가의 문학관을 바탕으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의문점을 풀어 나갈 때, 우선 K와의 관계에서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다룰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K에 대한 선생님의 배신행위를 종교적 이원론인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논자는 전통적인 종교적 이원론에 기대는 대신 인간이 강력한 상황의 힘에 직면했을 때 누구나가 겪게 되는 행위 변화의 본질을 살펴봄으로써 선생님의 행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선생님의 죽음의 명분이 된 메이지 정신을 선생님 의식의 바깥에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로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Philip G. Zimbardo)[8]와 활동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9]의 이론을 원용하여 선생님의 자살과 메이지 정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분석해 보았다. 이들의 사회심리학설은 인간의 행위가 개인의 내적인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사회적인 외부의 자극과 권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상으로 『마음』에 등장하는 죽음에 대한 논자의 연구배경과 방법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본론의 <1장>에서는 '마음'의 개략적인 의미를 다루고, 이어서 마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에 관한 개략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이런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2장>,<3장>에서는 K와 선생님의 관계에서 알게 되는 제반 사항들

역사학 이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 난해한 작품으로 꼽힌다.

6) 움베르트 에코, 『'장미의 이름' 창작노트』, 열린책들, 2002, p.10

7) 夏目漱石、「小説「エイルキン」の批評」(『漱石全集 第三劵 英文学研究』、岩波書店、1995) , p.101

8) 필립 짐바르도(Philip G. Zimbardo) -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도록 전환시키는 상황과 시스템의 영향력을 그의 저서『루시퍼이펙트(2007)』에서 밝히고 있다.

9)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 활동철학가이며 하이데거의 제자이기도하다. 현대에 들어와 인간의 개별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인간의 여러 속성 중 하나를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는 그는, 근본악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면서 악이 개인의 악한 본성에서 유래하는 것만은 아님을 저서『인간의 조건(1958)』을 통해 입증했다.

을 찾아보고 동시에 그것이 선생님의 죽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작가가 작품 이면에 감추고 있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인공 선생님과 작자 소세키의 관계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마음』의 텍스트는 2002년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발행한 문고판을 사용하였다.

본 론

1. 마음과 죽음의 문제

1.1. 마음과 자살의 정의

『마음』은 1914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선생님의 유서」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이것이 단행본화 되면서「心(こころ)」이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었다. 일본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心(こころ)」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음은 인간 정신활동의 총체로 이성, 지식, 감정, 의지 등 모든 정신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또한, 표면으로는 알 수 없는 기분, 선천적인 성격, 타인이 모르는 생각 등으로 정의내리고 있다.[10] 『마음』이 처음 출간된 이와나미(岩波)서점은 소세키가 직접 디자인한 표지를 그대로『마음』의 표지로 택했다. 이것은 「心」의 자원(字源)의 자해(字解)를 그대로 이용한 디자인이다. 소세키가 시각상의 효과만의 계산하여 이 디자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心」의 자해(字解)를 일부러 채택한 것은 아닌가[11]라는 견해를 갖는 학자도 있는 만큼, 제목 자체가 암시하는 작품의 내적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마음'이 의미하는 개략적인 허용범위를 살펴보도록 한다.

마음이란 엄청나게 큰 세계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또는 '남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마음의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고 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실토하며 평소에 모르고 지내는 속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외향적인 서양인들에게는 말이나 표정으로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주목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대체로 마음과 마음이 말없이도 통한다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비언어적 소통을 중요시한다.

인간의 습관이나 행동은 의식할 수 있는 마음이라기보다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의 마음에 의해 지배받는다. 의식 세계만으로 우리 마음 전체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인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무의식 세계를 포괄해야만 한다.

무의식이란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한 인간에게 녹아들어가 있는 인간 영혼의 심연

---

10) 小学館国語辞典編集部、『日本国語大辞典　第二版　第５巻』、小学館、2001,　p.657

11) 山下聖美、「「こころ」論の大海へ － 検証「こころ」論ことはじめ」(『江古田文学 第52号』江古田文学会, 2003.),　p.217

이라고 말한다.[12]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만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성격이나 유전적인 것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 바탕위에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자기만의 무의식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의식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상을 만들어 냈을까? 조영석은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음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고 주장한다.[13]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마음」은 외부나 내부의 경험을 통해 각인된 기억이, 의식세계에서 무의식세계로 끌어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무의식에 감추어진 깊은 마음의 상처, 갈등, 두려움 등을 의식이라는 수면위로 끌어올려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생님이 형성하는 무의식의 세계는 선생님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정신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무의식의 세계는 선생님 본인도 전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속에 그려진 선생님이 남긴 유서가 선생님의 마음을 전부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유서에 담겨있지 않는 선생님의 숨겨진 마음을 파악하려는 논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죽음」이란 살아있는 자들의 시선을 통해서만 그려진다. 이것은 특히 소설세계에서 잘 다루어진다. 세계문학의 절반은 죽음과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R.W.B. 루이스는 「20세기 문학은 죽음의 고찰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세기의 문학세대를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바로 죽음의 사실에 반하는 방법여하」[14]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학은 인간존재의 존재론적 탐구에 관심을 갖는 예술양식이다. 다양한 문학 장르 중에서도 특히 소설이 삶에 더욱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존재의 영원한 미로인 죽음의 문제가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음』에서도 죽음의 이미지가 어떤 것보다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죽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선생님의 양친과 장모, 천황의 죽음은 병사(病死)의 형태이고, 아가씨의 부친은 전사했으며, 선생님과 K, 노기(乃木)장군은 자살이라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15] 이러한 여러 죽음의 형태 중에서 자살의 형태를 띠고 그려진 죽음이 소설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작가가 비중을

---

12) 이영돈, 『KBS특별기획 다큐멘터리 - 마음』, 예담, 2006, p.171
13) 조영석, 「소세키의 『마음(こゝろ)』연구 - 작중인물의 無名性과 「선생님과 유서(先生と遺書)」의 문제를 중심으로」, 韓國日語日文學會, 2006, p.193
14) 유금호, 『韓國現代小說에 나타난 죽음의 硏究』 동천사, 1988, p.11 再引用.
15) 정승아, 「나쓰메소세키(夏漱目石)의 「こころ」론 : 등장인물들의 염세주의를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2006, p.41 참조

두고 그린 부분이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세 번 이나 등장하는「자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A. 알바레즈는 자살의 세계를 예조(豫兆)로 가득 찬 미신의 세계로 보았다.[16] 이 세계 안에서는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모두 맞아 들어가고 모든 일이 하나같이 자살 결심을 강화시켜준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상에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는 듯이 여겨지는 것이다. 에밀 뒤르켐은 자살을 피해자 자신에 의해서 완수되는 행위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결과되는 모든 죽음[17]으로 정의 내렸다. 즉, 자살이라는 용어는 희생자 자신이 일어나게 될 결과를 알고 행하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모든 죽음의 사례들에 적용된다.

어떤 행위도 자살만큼 다른 인간과의 무관계성을 보여 주는 것은 없다. 독일어에서는 자살을 'Freitod'로 표기한다. 'Frei'는 '자유로운', '자발적인'이라는 뜻으로서 자기말살의 결단을 내리는 개인적 자유의 요소를 강조해 준다.[18] 한자문화권에서는 자살을 '自殺'이라고 표기한다. '自'가 자유롭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의 의미는 동·서양을 통틀어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은 이렇듯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개별화하는 데서 일어난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내부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는 내부의 힘에 의해서만 결정된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밖에서 오는 것도 있으며, 외적인 현실을 내부세계의 충동과 조화시키려고 하는데서 오는 것도 있다. 이렇듯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감정의 변화는 복잡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일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죽음의 원인은 그 사람 자신도 모르는 깊은 곳에 있다.

자살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다.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자기파괴라는 파국에 이른다는 것은 수많은 소설들에서도 잘 묘사되어 있다. 『마음』에서도 선생님의 죽음은 오랜 시간을 거쳐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선생님이 자살을 선택했는가의 문제가 그동안의 연구에서 명확해져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친구 K에 대한 죄의식이 하나의 계기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계기일 수는 없다. 선생님은 K의 자살 후에 죄의식에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살아간다. 게다가 그 과정 중에 K의 죽음이 단순히 실연의 결과라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깊은 고독의 결과인 것도 통찰할 수 있었다. 즉 K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선생님은 죽음을 선택했는가가 의문점으로 남는다.

---

16) A. 알바레즈, 『자살의 연구』, 청하, 1987, p.160
17) 에밀 뒤르켐, 『자살론』, 청아출판사, 1997, p.18
18) 칼 뢰뵈트, 「자살은 인간이 가진 가장 빼어난 가능성」(『어느 쓸쓸한 날의 선택 자살』, 북스토리, 2003), p.32

선생님의 자살의 보다 직접적인 계기가 메이지천황의 죽음과 그에 이은 노기대장의 순사라는 사건에 있는 것은 「유서」속에 서술되어 있다. 선생님의 자살은, 한쪽 면에서는 메이지천황의 죽음에 의해 상징되는 「메이지 정신의 종언」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과 그 전의 K에 대한 죄의식이 연결 지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른바 외부의 사건과 내부의 사건이 선생님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 속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가는 건가라는 점을 생각하면 반드시 명확하지만은 않다. 게다가 그것은 선생님의 자살이라는 사건으로 작가 소세키가 결국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마음』의 테마 그 자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1.2. 일본인의 윤리관과 자살의 관계

일본 문화에서 자살은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 문화에서 자살을 죄악시 하지만 일본에서는 자살을 '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별한 상황에서 자살은 하나의 의무가 되기도 했다. 개인에게 밀착된 사회적 기사도 정신이 자살을 하나의 의무로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살은 개인의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까운 죽음이었다. 일본사회는 철저하게 권위적이고 질서에 따라 움직이며, 치열한 경쟁의 분위기로 얼룩진 사회이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은 사회에 봉사하고 성공하는 것이다. 이에 실패한 사람은 전통적인 일본도덕에 따라 자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것은 할복의 형태로 예부터 행해져 왔다. 일본식 기사인 사무라이는 언제라도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무사들에게 자살은 가장 고귀한 의무였다.

일본에서는 패전 후 전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패망한 그들 민족과의 연대의식에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끊었다. 자살을 뿌리 깊은 전통으로 여겨온 그들은 중세 때부터 이어져 온 할복이라는 형태를 삶의 영역에서 이어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은 이런 자살을 개인의 권리가 아닌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서양의 자살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개인의 자유과 권리를 중시하는 서구사상은 죽음의 선택 행위를 개인의 자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도덕적 의무에 속박되는 할복자살이 일반인의 삶에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자유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2. 선생님과 K의 관계

2.1. K의 인물의 성격

K는 선생님과 같은 니이가타현(新潟県) 출신으로, 진종(眞宗)의 승려 아들로 태어났다. 차남인 그는 어느 의사 집안에 양자로 보내지는데 K의 양가(養家)에서는 그를 의사를 시킬 목적으로 도쿄(東京)로 유학을 보냈으나, 그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학문을 원했다. K는 양가에서 받은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던 중, 대학 때 양가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다시 생가(生家)로 복적(復籍)한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양가와 생가로부터 의절 당하게 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를 취하게 하는 K의 성격은 유아기 때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K는 계모의 손에 길러졌기 때문에 친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다. 이런 성장배경에서 나온 불안과 불만이 그의 강경한 성격을 형성했으리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K는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오로지 자신이 추구하는 길(道)를 위해 사는 인물이다. K의 인물상을 찾는 열쇠가 되는 것이 K가 소설 속에서 이용하는 이 길(道)이라는 단어이다. 그럼 K가 몇 번이나 언급한 길(道)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K의 본가는 진종이다. 그가 진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길(道)은 K가 믿는 교의(教義)의 진리로 볼 수 있다.

> 頑固な彼は医者にならない決心をもって東京へ出て来たのです。私は彼に向かって、それでは養父母を欺くと同じことではないかと詰りました。大胆な彼はそうだと答えるのです。道のためなら、その位のことをしても構わないというのです。その時彼の用いた道という言葉は、恐らく彼にも能く解っていなかったでしょう。(下　十九)
> 고집센 그는 의사는 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도쿄로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은 양부모를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대담한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길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일은 해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쓴 길이라는 말은 아마 그 자신도 잘 이해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겠지요. (하 19)

K는 양부모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결심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본가와의 관계도 악화된다. 그는 이 관계악화를 시작으로 그는 신경쇠약에 걸린다. K는 양가를 나오기 이전부터 자기가 추구해 가야하는 길(道)에 구속되면 될수록 가족을 비롯한 주변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K가 언급한 「길(道)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일은 해도 괜찮다」는 것은 즉, 자

기가 믿는 교의(教義)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양부모를 속이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K에게 있어서 교의의 진리는 인생의 전부이며, 그에게는 그 외에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길(道)을 위해 K가 선택한 행위가 양가(兩家)를 배반하는 결과를 낳은 것과 그로인해 신경쇠약에까지 걸리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길(道) 자체를 의문시하게 만든다. K가 가고자하는 도(道)의 길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폐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주변에 폐를 끼치는 것, 이것은 K 스스로 인식하고 있던 것과 정 반대인 비도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길(道)을 위해서라면 주변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주변의 환경변화에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라면 이는 충분히 모순이다. 과도한 금욕은 스스로의 정신을 몰아넣게 된다.

> ところがこの過度の労力が次第に彼の健康と精神の上に影響して来たように見え出しました。…(中略) …彼は段々感傷的になって来たのです。…(中略) …自分の未来に横たわる光明が、次第に彼の眼を遠退いて行くようにも思って、いらいらするのです。(下 二十二)
> 이 지나친 노력이 점차로 그의 건강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그는 점차 감상적이 되어 갔습니다. …(중략)… 자신의 미래에 가로누워있을 광명이 차츰 그의 눈에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하 22)

> Kはただ学問が自分の目的ではないと主張するのです。…(中略) …その上窮屈な境遇にいる彼の意志は、ちょっとも強くなっていないのです。彼はむしろ神経衰弱に罹っている位のです。(下　二十二)
> K는 단지 학문만이 자신의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지의 힘을 키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략)… 이미 어려운 환경에 있어 온 그의 의지는 조금도 강해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거꾸로 신경쇠약에 걸려있을 정도였습니다. (하 22)

<하. 22>에 적고 있는 것처럼, 타인인 선생님의 눈으로 보기에도 K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정신적으로 향상되거나, 의지의 힘을 키워 강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K는 자신의 길(道)이 틀리지 않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길에 혼란과 회의를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K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길(道)에 대한 불안감,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을 무의식중에 느끼고 있었

으나 스스로 자각하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 仏教の教養で養われた彼は、衣食住についてとかくの贅沢をいうのをあたかも不道徳のように考えていました。なまじい昔の高僧だとか聖徒だとかの伝を読んだ彼には、ややともすると精神と肉体とを切り離したがる癖がありました。(下　二十三)
> 불교 교리 속에서 자라난 그는 의식주에 관해 이런저런 사치를 하는 것을 마치 부도덕한 일인 양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고승이나 성자들의 전기를 어설피 읽은 그에게는 툭하면 정신과 육체를 떼어서 생각하고 싶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 23)

마치 K는 수도승같이 세속에서 고고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이것은 K가 자란 환경과 연관 지어진다. K는 절에서 자라 세속과 떨어진 세계에 익숙해 있다. 이런 성장 배경이 K를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을 부정하고, 자신이 만든 이상세계에서 살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K에게 있어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세계, 길(道)을 따라 도착하게 되는 마음의 경지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전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이 「아마도 그 자신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한 지적은 목적지를 명확히 의식화 하고 있지 않은 K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인생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길(道)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던 K는 그가 믿는 도(道)에 속박되어 궁지에 몰려 모든 것을 희생해 온 듯하다. 정진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취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K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道)이 자신의 생각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여기에는 생가와 양가에 대한 죄의식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가씨를 사랑하게 된 일을 계기로 K의 정신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신조로 삼던 K가 아가씨에게 사랑을 품은 것은 그의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길(道)에서의 이탈이었다. 길(道)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K가 느끼기에 사랑을 하는 것은 인생의 파탄을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Kは私よりもなお寡言でした。…(中略) …ただ口が聞きたくないからだといいました。…(中略) …そうだなあと低い声で渋っています。(下　三十八)

K는 나보다도 더 말이 없었습니다.… (중략)… 단지 말이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 (중략) …글쎄 하는 낮은 목소리가 내키지 않아하고 있었습니다. (하 38)

彼は何時もにも悄然とした口調で、自分の弱い人間であるのが実際恥ずかしいといいました。そうして迷っているから自分で自分が分から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私に公平な批評を求めるより外に仕方がないといいました。(下 四十)
그는 평소와 달리 풀이 죽어 자신이 약한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자신이 자신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한테 공정한 비평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 40)

K가 선생님에게 아가씨에 대한 마음을 고백한 뒤의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랑에 빠진 청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K는 고백 후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지고, 선생님을 피하고 있는 듯이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에 의한 고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모순을 깨닫고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느껴진다. K는 같은 길을 추구해 가는 동료로서 선생님을 통해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평가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선생님의 「향상심이 없는 녀석은 바보다」라는 지적에 K는 큰 쇼크를 받는다. 여기서 K는 무의식 속에 알고 있던 사실을 선생님을 통해 깨닫게 되어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는 자신이 지향하는 길에서 벗어나 버린 것을 선생님이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K에게 있어서 타인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간파당하는 것은 수치였다. 그 후의 대화에서 K는 선생님의 추궁에 「각오…각오라면 없지도 않지」라고 답한다. K는 여기서 죽음을 결심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결을 결행한다. 자신이 스스로 추구하던 길(道)에서 이탈한 것에 대한 절망감과 수치심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자신이 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한 고백이, 유서에 남긴 의지박약에 죽음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이어진다. 이를 그 의미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K가 추구하는 향상심은 「강한 인간」이 되는 것이었다. 이는 여러 번 실패에 부딪히고 상처 입으면서 불행을 이겨나간 자만이 갖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은 떠나 누구와도 부딪히는 일 없이 지내면서 자신을 다스리는 수도자와 같은 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에 부딪히며 거기서 깨달아 가는 것이 강한 인간이 되는 것이며 그 과정을 도(道)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키구치 오사무(関口収)도 「실패하고 좌절감 ·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것, 우여곡절 · 좌우충돌하면서 목표에 닿아가는 것, 자신의 형태

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강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 K는 이런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다」[19]라는 의견을 통해서 K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2.2. 고향상실과 하숙

인간의 성격은 대부분 유아기에 형성된다. 유아기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은 아이는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성이 발달된다. 이들은 사회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인격형성이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선생님과 K의 성장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류에 속한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의 사랑 속에서 충분한 애정을 받고 안정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결핍감을 지닌 사람들은 애정이 담긴 관계에 집착하게 된다. 선생님과 K는 애정에 대한 결핍감을 지닌 채 성인이 되었다. 이들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을 테지만 이 결핍감을 고독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들은 애정에 대한 결핍감을 무의식중에 제 2의 고향인 하숙을 통해 채우려고 하였다.

<선생님과 유서>의 <3~9장>은 선생님이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을 때 부모가 장티푸스로 돌아가신 일, 또 양친의 사후, 친척 간에 유산문제가 발생한 것을 적고 있다. 선생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여의고 신뢰하던 숙부에게 모든 것을 맡긴 후 고향을 떠나 도쿄의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다. 그는 비록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언제나 고향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서 느끼고 있었다.

> 私は、故郷を離れても、まだ心の眼で、懐かしげに故郷の家を望んでいました。…(中略) …休みが来れば帰ら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気分は、いくら東京を恋しがって出て来た私にも、力強くあったのです。私は熱心に勉強し、愉快に遊んだ後、休みには帰れると思うその故郷の家をよく夢にみました。(下　五)
> 나는 고향을 떠나서도 아직 마음의 눈으로 애틋하게 고향집을 바라고보고 있었습니다. …(중략)… 아무리 도쿄가 좋아서 올라온 나였다고 해도 방학이 되면 돌아가야 한다는 기분은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논 다음에 방학이 되면 돌아 갈수 있는 고향집을 꿈속에서 곧잘 봤습니다. (하 5)

---

19) 関口収、「「こころ」におけるkについて　ーkにとっての「道」とは」(江古田文学　第52号　江古田文学会　2003), p.210

生まれた所は空気の色が違います、土地の匂も格別です、父や母の記憶も細やかに漂っています。一年のうちで、七、八の二月をその中に包まれて、穴に入った蛇のように凝としているのは、私に取って何よりも温かい好い心持だったのです。(下　七)

태어난 곳은 공기의 색깔이 다릅니다. 땅 냄새도 특별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기억도 짙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1년이란 기간 중 7~8월의 두 달을 구멍 속에 들어간 뱀처럼 꼼짝않고 지내는 일은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 7)

선생님은 고향을 떠나 있어도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거기에는 아직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라는 것이 마음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선생님이 부모의 급사(急死)로 인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고향의 대가족으로 된 집에 호주(戶主)로서 소속되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숙부가 자신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인간불신에 빠진 선생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고향을 떠난다. 선생님의 충격이 컸던 것은 여태껏 깊이 신뢰하고 존경하던 백부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선생님의 마음에 상처로 남은 것은 부모님 사후, 선생님에게는 가족이었던 백부일가가 금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선생님을 집의 외부로 밀쳐내 버린 일이었다. 선생님은 이때, 진정한 의미로 고아가 되었다.

私は永く故郷を離れる決心をその時に起こしたのです。叔父の顔を見まいと心のうちで誓ったのです。(下　九)

나는 그때 영원히 고향을 떠날 것을 맹세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던 것입니다. (하 9)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집을 버린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고향은 선생님이 「1년이란 기간 중 7,8월 두 달을 구멍 속에 들어가 뱀처럼 꼼짝 않고 지내는 일은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엄마의 품속처럼 따뜻해서 안심할 수 있는 장소였다. 태어난 곳은 공기의 색깔도, 땅 냄새도 다른 그리운 토지였다.

선생님은 누구나 영원히 소속되어 있어야 할 고향을 상실했다. 고향을 버린 후, 선생님은 미망인과 아가씨가 있는 하숙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숙부의 배신으로 인해 인간불신에 빠져있던 선생님은 하숙을 통해 점차 인성을 회복하며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된다. 하숙은 선생님에게 있어 제2의 '소속처'이자 마지막 '구

원처'였다. 그리고 아가씨와 부인은 선생님에게 있어 미래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애정에 대한 결핍감을 지니고 있던 선생님은 한 번 집을 이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집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었을 것이다. 선생님과 비슷한 결핍감 속에서 자란 K도 고향을 영원히 상실한다. 양가뿐 아니라 생가의 가족과의 의절은 K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다. K가 말하는「강한 정신」이라는 것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이겨낼 방편으로서 그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K를 선생님은 자신이 속한 소속처인 하숙으로 데려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하나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심리적 안전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다. 소속감은 자신감을 가져다준다.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면, 그곳에 소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를 외부의 것보다 우월하게 여기기도 한다. 반대로 외부의 것을 자신의 집단의 가치보다 우습게 여기기도 한다. 선생님은 하숙을 하기 전에는 K가 추구하는 길(道)을 동경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숙을 통해서「인간적인 삶」의 가치를 깨우치게 된 뒤에는, K가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시각이 바뀌게 된다.

> なまじい昔の高僧だとか聖徒だとかの伝を読んだ彼には、ややともすると精神と肉体とを切り離したがる癖がありました。(下 二十三)
> 옛날 고승이나 성자들의 전기를 어설피 읽은 그에게는 툭하면 정신과 육체를 떼어서 생각하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 23)

> しかし眼だけ高くって、外が釣り合わないのは手もなく不具です。…(中略) …いくら彼の頭が偉い人間の影像で埋まっていても、彼自身が偉くなって行かない以上は、何の役にも立たないという事を発見したのです。(下 二十五)
> 그러나 지향하는 곳만 높고 그 밖의 것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결국 불구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중략)… 아무리 그의 머릿속이 훌륭한 사람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그 자신이 훌륭해지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 25)

선생님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숙'이라는 새로운 가족의 영역에 속하게 된 사실을 우월한 입장에 서서 K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발견하고 추구하는「인간적인 삶」을 우위에 두고 K를 교화(敎化)시키려는 것이 그의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3. 선생님의 심적갈등

2.3.1. K를 배신하게 되는 경위

모든 일의 발단은 선생님이 K의 생활 내부에 참견하기 시작한데서 찾을 수 있다. 자기척도를 가지고 갑자기 K의 내면생활을 명료하게 결론지은 것에서 K의 불행과 그것에 얽힌 선생님의 죄는 이미 양산되었다.

> 私は奥さんからそういう風に取扱われた結果、段々快活になって来たのです。それを自覚していたから、同じものを今度はKの上に応用しようと試みたのです。(下　二十四)
> 나는 아주머니가 그런 식으로 대해 준 결과, 점점 쾌활해졌었습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이번에는 K한테 적용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 24)

> 私は何を措いても、この際彼を人間らしくするのが専一だと考えたのです。…(中略…) 私は彼を人間らしくする第一の手段として、まず異性の傍に彼を坐らせる方法を講じたのです。そうして其所から出る空気に彼を曝した上、錆び付きかかった彼の血液を新しくしようと試みたのです。(下　二十五)
> 나는 무엇보다도 그를 인간답게 만드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나는 그를 인간답게 만드는 첫 번째 수단으로서 우선 이성 옆에 그를 앉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기 속에 그를 놔 둔 다음, 녹슨 그의 피를 새로운 피로 바꾸는 일은 시도한 것입니다. (하 25)

아주머니와 아가씨가 있는 하숙에서「인간적인 삶」을 우선적인 가치척도로 받아들인 선생님은 K에게도 이를 적용시키려고 했다. 결핍감을 지닌 선생님은「하숙」이 형성하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실제보다 더한 가치를 부여한다. 상처받은 적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만큼 관계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타인의 애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선생님은 호의와 우정이라는 형태로 K의 뒤를 돌봐주려 한다. 단지 자신의 가치기준을 통해 K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그 의도는 당시 열악한 상황에 처한 K를 돕고자한 우정에서 나온 행위였다. 그러나 선생님의 희망과는 달리, K는 선생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선생님이 종교적인 감정에 이를 정도로 숭고하게 사랑하게 되는 아가씨를 K도 또한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는 K에게 단순히 사랑하는 대상을 빼앗

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보기에는 선생님의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크게 그려지고 있다. K가 고백하던 당시의 자신의 감정 상태를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その時の私は恐ろしさの塊りといいましょうか、または苦しさの塊りといいましょうか、何しろ一つの塊りでした。石か鉄のように頭から足の先までが急に固くなったのです。呼吸をする弾力性さえ失われた位に堅くなったのです。(下　三十六)
> 그때의 나는 두려움의 덩어리라 할까, 아니면 고통의 덩어리라 할까, 어쨌거나 하나의 덩어리였습니다. 돌이나 쇠붙이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호흡을 할 탄력성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굳어졌습니다. (하 36)

아주머니의 호의와 아가씨에 대한 애정이 서서히 K에게로 이동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 선생님은 K의 고백으로 인해, 자신이 성취한 새로운 가족 – 소속처에서 떠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가 평생 고뇌하게 되는 고독감과 상실감이 그 두려움 속에 포함되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 후에 K를 배신하게 되는 선생님의 행위는 K에 대한 열등감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논자는 도덕적인 선생님이 '배신'이라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집단에서 배척당하지 않고 거기에 소속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속하고자 한 새로운 소속처에 대한 갈망은 그 소속처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증가되었다. 원하는 사회집단에 들어가고 싶은 유혹은 강하다. 수용을 원하는 욕망의 힘은 때로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게 만들고, 그 집단에서 거부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일도 불사하게 만든다. 이것은 착한 사람이라도 악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되고, 유혹당할 수 있게 한다.[20]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껏 살아온 삶이나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른바 「악한 본성」에 따르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 이전에, 선생님이 처한 상황이 K를 돕기 위해 그에게 무릎까지 꿇던 선생님을「배신」이라는 결과로 몰고 간 것이다.

상황이 발휘하는 힘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지식을 가진 행위자로서 분별 있고 비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선생님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개인의 힘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자신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인격의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이 인격의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내부의 힘

20)필립 짐바르도, 『루시퍼 이펙트』, 웅진지식하우스, 2007, p.639

은 학문적인 지식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한 실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다. 이것을 쌓아서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에게는 이 내부의 힘이 없었다. 당시의 선생님은 자신의 내면보다 자신을 둘러싼 직접적인 환경인 외부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나 행복을 찾았다. 정체성은 K에게서, 행복은 아가씨를 통해 확립해 가려고 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너졌으며, 외부의 압력 – 돌변한 상황 – 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선생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항하여 단단히 붙들고 있을 만한 것을 내면에 지니지 못했다.

어떤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이끌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선생님은 도덕적으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叔父に欺かれた当時の私は、他の頼みにならない事をつくづくと感じたには相違ありませんが、他を悪く取るだけあって、自分はまだ確な気がしていました。世間はどうあろうともこの己は立派な人間だという信念か何処かにあったのです。(下　五十二)
>
> 작은 아버지한테 속았을 당시의 나는 남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남을 나쁘게 생각하는 만큼 자신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이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신념을 어딘가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下　52)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자기중심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자신의 내부에 본질적이고 불변하는 선이 깃들어 있으며, 그 선은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 선생님은 스스로 공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도덕적, 합리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다. 선과 악 사이에 경계를 세워놓음으로써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단순화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상황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신화를 창조해냄으로써 스스로 상황의 힘에 충분한 경계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 선생님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

> ところが奥さんは止せといいました。私には連れて来なければ済まない事情が充分あるのに、止せという奥さんの方には、筋の立った理窟はまるでなかったのです。(下十八)
>
>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한테는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만두라고 하는 아주머니 쪽에는 논리적

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 18)

そんな人を連れて来るには、私のために悪いから止せといいなおします。何故私のために悪いかと聞くと、今度は向かうで苦笑するです。(下　二十三)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나를 위해 좋지 않으니까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를 위해 좋지 않느냐니까 이번에는 아주머니 쪽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 23)

아주머니는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다. 선생님의 말에 쓴웃음을 짓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의 사회적인 미숙함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은 사회적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만약 K를 집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요.」라고 언급한 대사에서 당시 자신이 그 상황을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선생님의 이런 미숙함은 지나칠 정도의 죄의식과 자책감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나 자신을 정의내릴 수 있다. 사회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자기 자신의 인격도 돌아 볼 수 있게 된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 또한 타인에게 어쩔 수 없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지만 선생님은 이런 경험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지나칠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의 죄에 큰 무게를 더한 것이다. 미즈카와 타카오(水川隆夫)가 직업에 의해 조금이라도 자기실현의 기쁨을 맛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면 자살이라는 최악의 결과만은 벗어날 수 있었을 거라는 주장은 이와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담겨있다.[21]

2.3.2. K의 죽음에 대한 자의적 해석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을 제한하는 규칙이나 억압이 관여하는 상황에서의 제한된 경험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선생님은 실제로 주변인들에 대해 전부 알지는 못했다. 숙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K에 대해서도 아가씨를 좋아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청년인 내(私)가 선생님과 메이지정신에 대해 은연중에 비판적 시각을 내비추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제한된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작은 단편만을 알게 된 것일 뿐이다. K

21) 水川隆夫、『夏目漱石「こころ」を読みなおす』, 平凡社新書, 2005, p.181

가 선생님과 동거하게 된 당시의 상황 등을 생각하면, 그는 선생님이 아가씨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것을 당연히 눈치 챘어야 했다. 선생님도「이상하게도 그는 내가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는 낌새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시하라 치아키(石原千秋)는 선생님이 외경하고 있던 K의 성격의 강함을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언급 했다.[22] 이것은 강함이라기보다는 둔함이며, 이기주의로 볼 수 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만 충실하고 자신의 세계만 중시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존재를 염두 해두지 않을뿐더러 인정하지도 않는다. 선생님은 항상 K를 존중하고 배려하지만 K는 선생님의 생각과 사상을 인정하거나 배려하지 않는다.

선생님의 배신은 그만의 죄가 아니라, 선생님의 사랑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K의 둔감한 자기중심성에도 있다. K가 선생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은 K가「자아에 충만해」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아도취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주의의 이기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례이다.

K는 자신 이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인물, 즉 철저한 나르시스트(narcissist)이다. 그 증거로, K는 타인과의 관계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아가씨에 대한 사랑을 거의 죄악시하고 있다.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K에게 있어서 패배와 마찬가지이다. 이런 K의 성격은 시선공포증이라 불릴 정도로 타인의 표정이나 자신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생님의 성격과 대조적이다.

이와 같다면 K가 선생님에게 배신당해 그 고독감에 자살을 선택했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 K는 남에게 영향을 받아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인물이 아니다. 자신의 결혼소식을 듣고 K가 며칠 뒤 자살한 것을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은 피해의식이 강한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유서 자체는 선생님의 주관적인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실한지 알 수 없으며, 혹은 어떤 사실이나 감정을 숨겼을지도 모른다. 이는 작가가 독자 나름의 이해 부분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유추해 볼 뿐이다.

3. 선생님과 유서의 문제

3.1. 선생님의 죽음의 문제

『마음』은 단일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없는 복수성을 띄고 있다. 특히 유서에는 선생님의 죽음에 이르는 내면극이 충분히 쓰여 있지 않다. 주제와 말미를 쓰고 가

22) 石原千秋、『「こころ」大人になれなかった先生』, みすず書房, 2005, p.89

장 중요한 몸통부분을 벗어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K의 죽음이 선생님에게 강요한 해석의 공방을, 독자는 선생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반복하도록 유혹당한 것이다.

유서에서 읽을 수 있는 K에 대한 지나친 죄책감은 선생님 자신이 K를 죽였다는 느낌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선생님이 K를 죽였다고 느끼는 것은 일종의 '바램'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K가 죽었으면 하는 바램에 의해 죄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 Kの葬式の帰り路に、私はその友人の一人から、Kがどうして自殺したのだろうという質問を受けました。…(中略) …私はこの質問の裏に、早く御前が殺したと白状してしまえという声を聞いたのです。(下　五十一)
> K의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의 친구 중 한 사람한테서 K가 왜 자살한 것일까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략)… 나는 이 질문 속에서 빨리 네가 죽였다고 고백해 버리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 51)

선생님이 질문의 뒷면에 「빨리 네가 죽였다고 자백해버려」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의 밑바닥에 K를 살해하고 싶다고 하는 욕구를 숨기고 있었던 것을 양심이 자각했기 때문이다. K의 자살은 선생님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무의식적인 살의(殺意)의 실현이었다. 그 후 선생님은 나(私)에게 「나는 자기 자신조차 신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아니, 생각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한 뒤에 놀랐습니다. 그 뒤에 너무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이 '했다'라는 단어는 '배신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죽였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는 것은 양심의 반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의식적으로는 살인행위 그 자체와 동일하다. 때문에 자살하고자 하는 그의 충동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프로이트는 자살충동이 타인에 대한 살해의 충동이 자기 내부로 향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23]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생님의 K의 죽음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 간다. 유서의 서술을 주의 깊게 쫓아가보면, 선생님이 속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윤리적 필연성이 희박하게 되어가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K에 대한 죄책감에서 출발한 죽음에 관한 상념이 인간 본연의 악을 깨닫게 되면서 선생님은 그 죄책감에서 해방된다. 선생님은 「K가 나처럼 단 홀로 남겨져 외로움을 주체 하지 못해 돌연히 죽은 것은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보이지만, 합리적인 개인주의 윤리로 보면 거기서 선생님은 정말로 친구의 죽음에 대한 부채에서 해방되었다 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23) 마르탱 모네스티에, 『자살』, 새움, 2003, p.624

이 직후부터 갑자기 일반화된 원죄의식이 모습을 감추고 선생님을 덮치는 두려운 힘, 불가사의한 힘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양심의 질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누구나 생활상의 경험으로 양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실제로 경찰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한 도시에 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아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양심의 존재를 깨닫는다. 양심의 힘은 본래 공격적 본능의 일부에서 파행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것은 주위환경에 대해 외적으로는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고 안에 남아서 일종의 재판관과 같은 존재로 변형된다. 이 양심의 활동은 어떤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 법칙 중의 하나는 자아가 밖을 향해 파괴력을 발동시키면, 거기에 비례해서 자아 자체가 고통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방식은 보복법칙으로 사회제도 속에 정착되어 있으며,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것은 모든 형벌제도의 직감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다.[24]

때때로 양심의 요구는 강하고 준엄해서 가라앉힐 수 없을 때도 있다. 이를테면 선생님과 같은 경우이다. 선생님이 느끼는 죄책감은 선생님이 실제로 K를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생겨났다. 무의식의 상태에서는 타인에 관해 파괴하려는 생각만 가졌더라도 실제로 그 파괴가 행해진 것과 같은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양심의 정의로 인해 선생님 내면의 질책의 목소리를 윤리가 형성한 양심의 목소리로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 私はしまいにKが私のようにたった一人で淋しくって仕方がなくなった結果、急に所決したのではなかろうかと疑がい出しました。そうしてまた慄としたのです。私もKの歩いた路を、Kと同じように辿っているのだという予覚が、折々風のように私の胸を横過り始めたからです。(下　五十三)
> 나는 결국 K가 나처럼 단 홀로 남겨져 외로움을 주체하지 못해 돌연히 죽은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율했습니다. 나도 K가 걸은 길을 K와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어떤 예감이 이따금 바람처럼 내 가슴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 53)

> 私は忽然と冷たくなったこの友達によって暗示された運命の恐ろしいさを深く感じたのです。(下　四十九)
> 돌연 차가운 시체로 변한 이 친구에 의해 암시된 운명의 공포를 마음속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하 49)

---

24) 칼. A. 메이거, 「자살의 해부」(『어느 쓸쓸한 날의 선택 자살』,북스토리, 2003), p.144

K의 죽음을 인간 일반의 고독으로 해석한 선생님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전율한다. 그리고「나도 K가 걸은 길을 K와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어떤 예감이 이따금 바람처럼 내 가슴을 스쳐간다」고 언급한다. 선생님은 「K의 고독」이라는 해석을 자기해방에 이용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K와 같은 죽음이라는 선택에 구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내면을 엄습하는「불가사의한 힘」도 양심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죽음에의 원망(願望)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선생님이「죽은 목숨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바라면서 「사람들 틈에 남겨진 미라처럼 존재해 나가는」것이다. 한편으로는「공부의 결과를 세상에 내 놓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던지 「어떤 방면인가로 나아가려하다」,「다시 일어서려 하다」등의 말에 나타난 것처럼 강한 삶의 의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무언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너는 무엇을 할 자격도 없는 남자다」「스스로 잘 알고 있는 주제에」라고 하는 나쁜 의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오게 된다. 이것은 「양심」이나 「자연의 목소리」가 아니다. K에 대한 죄의식에서 출발한 죽음에 대한 상념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선생님의 마음에 나타나 그가 무언가 활동을 하려고 해도「무서운 힘」,「불가사의한 힘」이 되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해 버린다. 이것은 선생님 스스로가 만들어낸「강박관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선생님을 엄습하는 강박관념이나 유서집필로 부추기어 몰아넣는 자기 내면의 요구를 「윤리적 속죄」나 「메이지 정신」이라는 단어에 치환(置換)해 버리면 소설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긴장감은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더 나아가서는 소설 전체가 내포(內包)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무언극을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 된다. 어떤 사물에 갇혀 사물의 형태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선생님의 유서의 내용에 갇혀 유서를 쓰는 것에 의해 선생님이 무엇을 성취·이룩하고 있는 걸까라는 중요한 사실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마츠자와 카즈히로(松沢和宏)가 「죄악감이나 메이지 정신 등이 이 작품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이나 선생님의 자살결행에 필적하지 않는 것은 명료하다」라고 지적하며 『마음』의 숨겨진 주제를 「자살」로 간파한 것은 어느 정도 동의 할 수 있는 의견이다. 25)

죽음의 관념에 사로잡혔던 선생님이 죽음에 대해 기억하는 최초의 장면은 부모님의 병사(病死)이다. 이 사건은 선생님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이미 죽음의 관념과 친숙해졌고, 자연히 성격이나 기질이 죽음에 가깝게 형성되어 자살관념에 대한 암시에 약한 체질로 그를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이

25) 松沢和宏、「<自由な死>をめぐって －「こころ」の生成論的読解の試み」(『漱石研究 第4号』 翰林書房 1995), p.159

약해진 신경은 자살의 관념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도 한다. 또 이 약해진 신경은 외부 충격에 우리의 내면을 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십대에 커다란 외부 충격을 받는다. 친우 K의 자살이 그것이다. 선생님은 외부로부터 폐쇄적으로 물러나 그 자극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집착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관념이 그를 점점 침식해 들어갔게 되었다.

선생님의 사고(思考)는 K와 비슷한 불행에 빠져있는 듯 하는 일체감을 느끼는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져 자신의 개인적인 불행을 실제보다도 훨씬 더 큰 것으로 느끼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주위 사람들의 상태를 불완전하게 상상한다. 내 마음 속에 일어난 것과 같은 느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혼란의 원인이 된다. 이런 원리에서 선생님을 파악해 본다면, K의 자살을 고독으로 보는 것은 자신이 고독하기 때문이며, K와 같은 길을 가리라는 예감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합리화시키고자 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생님은 K를 노력가이며 의지가 강하고 머리가 좋으며, 자기보다 뛰어난 인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재력과 생활의 지혜는 선생님 쪽이 뛰어났다. 그러나 이 재력과 살아가는 지혜는 선생님에게 있어 자랑스러워할 장점이 아니었다. 그러기는 커녕 선생님의 재산을 노린 숙부의 생활자로서의 책략에 선생님은 강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K에게 혐오하는 재력과 생활력으로 비겁하게 승리한 자신에 대해 선생님은 강한 죄악감을 품는다. 그리고 책략에 빠진 패자의 원통함도 언급하지 않은 채, 아가씨를 깨끗이 단념한 것처럼 보이는 K의 행위에 선생님의 K에 대한 일시적인 우월감은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결혼 후, 선생님은 생전의 K처럼 현실세계에서 한 발짝 떨어진 금욕승을 닮은 삶은 살아가게 된다. 아마 자신은 그런 의미로 삶을 산 것을 아니었겠지만 결국은 K와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K도 자살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면, 결국 인간은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본연의 죄악성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선생님이 K의 자살이 고독 때문이라는 사실을 유추해낸 것도 결국 K가 자신이 추구하는 도(道)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K가 넘지 못한 한계를 선생님 자신이 넘어보려는 것, 즉 K를 뛰어넘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생님은 미숙했던 10여년전의 K를 진정으로 뛰어넘는 길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K가 이르지 못했던 도(道)의 길을 자신이 이루려고 한 것이다.

예전의 사제관계에서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는 윤리가 강요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서로「자유와 독립」된 인격을 가진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 같

은 인간관계에 있는「현대」에 있어서는 제자는 이윽고 스승에게 복종했던 자신에게 굴욕을 느끼고 자신이 스승을 뛰어넘은 것을 증명하기위해 스승을「모욕」하기에 이른다.

사쿠타 케이이치(作田啓一)는 『개인주의의 운명』에서 선생님의 자살이 K에의 충성을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특정 인격에의 충성이 유지되어 있는 것을 노기대장의 순사로 증명했으며, 선생님도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26] 그러나 여기서 사쿠타(作田)의 이론을 따르게 되면, 선생님이 K의 죽음의 이유를 일반적인 인간이 갖는 고독으로 끌어내려 감싸여있던 신비화의 베일을 벗긴 것은 왜인가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선생님이 추측한 K의 죽음의 이유는 K를 도(道)를 지향하는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와 대등한 위치에 서있는 한 인간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K를 충성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부합한다. 선생님은 유서를 쓸 당시에 과거의 K를 미숙하게 보고 있는 시선을 소설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K가 현재의 선생님에게 한 발 앞서있는 스승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K에게 순사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유서에서 선생님이 나(私)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자유로운 죽음에의 욕구, 바람이다. 이 죽음에의 욕구는 K의 자살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양자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윤리적 속죄이야기가 요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생님은 죽음에 항거하지만, 그 항거는 죽음에 대한 거부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는다. 그는 자신의 망상 속에서 죽음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 설사 선생님이 K의 등장이 없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아가씨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미래는 결코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의 근본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K를 뛰어넘으려는 바램을 죽음을 통해 이루려고 하였다. 자신의 죽음에의 원망(願望)을 K가 선택한 죽음에의 이유를 뛰어넘는 무엇인가로 하고 싶었다. 선생님은 죽음을 하나의 기회로 인식한다. 여기서 자신의 삶을 완성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죽음은 선생님에게 삶의 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기 위해 또는 K로 인해 발생했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선생님은 죽은 사람은 항상 존경받고 죽어서도 완전히 잊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일본적인 죽음의 의미를 생각했을 것이다. 일본인들에게 있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위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들 중 자살한 사람들을 숭배하면서 경건한 마음을 갖기도 한다. 이것은 신도(神道)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 사람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에서 기인한다.

---

26) 作田啓一、 『個人主義の運命ー近代小説と社会学ー』, 岩波新書, 1983, pp.145~146 참조

3.2. 시대정신과 죽음의 문제

치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가장 극대화 된 곳이 군대이다. '수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조국의 명예를 지켜야 하며, 조국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것은 일본 군인의 규정이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인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27] 그러나 노기장군의 순사는 단순한 치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메이지천황에 대한 충성이 더 큰 의무를 부여한데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목적 – 메이지 정신에 충성 – 을 위해서 과해진다. 노기장군은 그 존재의 권한을 사회에 맡겼다. 이것은 개인이 사회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기장군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회는 의무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냈다. 사회가 자살을 강요하며, 사회의 압력이 그가 자살을 하도록 인도한 것이다.

선생님도「자유와 독립과 자아로 가득한 현대」를 살아가지만, 메이지라는 하나의 그룹에 절대 의존적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생님에게는 외부의 자극을 견뎌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힘을 외부에서 찾던 기질이 불러온 결과였다. 지식인의 정신적 균형이 더 잘 깨뜨려지는 것은 그의 정신적 균형이 더 많은 조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당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자기 자신 이외의 더 많은 요소들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균형을 유지할 수 없었다.

노기순사는 선생님에게 철학적 경전이 되었으며, 노기의 세계관은 선생님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 되었다. 노기 순사는 선생님에게 잠시 감정적 충격을 주었던 게 아니라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노기의 고통이 메이지 말기 당시 사회의 감정 상태를 잘 반영했기 때문에, 폭탄이 터진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노기 순사는 선생님이 이전에 이미 감염되었던 죽음의 질병을 다시 가져다주었다. 더구나 메이지 사회, 문화의 흐름은 그 열기를 더욱 확산시켰다. 노기순사는 선생님의 자살을 합리화시킬 알맞은 명분을 제공해 주었으며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환영할 만한 해결책이 되었다.

노기장군 순사보도를 접한 선생님은 노기의 행위를 계기로 자결할 결심을 하고 수행한다. 선생님에게 있어 노기대장의 순사가 방아쇠가 되었고, 그는 자신의 죽음을 메이지정신에의 순사로 설명한다. 이 메이지 정신에 순사하는 행위를 카미야 마사사키(神谷正明)는 메이지천황에게 과거 죄를 사죄하기 위해 뒤를 쫓는 노기장군

27) 마르탱 모네스티에, 『자살』, 새움, 2003, p.71

과 같은 행위로 보고 있다.[28] 그러나 노기장군의 순사와 선생님의 순사가 결코 같은 것일 수는 없다. 노기순사는 메이지 천황에게 충성이라는 결론을 가져오지만, 선생님의 순사는 충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기장군은 그것을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자결을 선택했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권리로 여기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私)의 아버지의 사상과의 대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메이지천황의 죽음에 관해 선생님이 읽어 낸「메이지 정신의 종말」이란, 결코 나(私)의 아버지가 느낀 것과 같지 않다.「아,아, 천황폐하도 드디어 떠났구나. 나도…」라고 중얼거리는 나(私)의 아버지에게 있어 천황의 죽음은 이른바 군신관계에 의한 임금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의 사는 방식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선생님의 자살은 당연히 그러한「메이지의 정신」에 순사하는 것이었다. 이 의미에서도 또한 그것은 노기장군의 죽음과는 다르다. 노기장군의 죽음이 자기 이외의 타인에게 순사한 것에 대하여, 선생님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정신에 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전통이 붕괴되는 새로운 메이지 사회, 선생님이 순사한 사회는 개인을 지배하는 강력하게 통합된 도쿠가와 시대의 윤리가 지배하는 메이지사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쿠가와 시대의 오랜 도덕도, 새로운 메이지의 도덕도 모두 인격에 대한 충성의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지는 선생님이라는 개인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선생님이라는 개인을 뛰어넘은 이른바 시대의 숙명과 같은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선생님을 포함하여 메이지에 사는 모든 개인을 뭔가의 의미로 규제하는 마음의 규범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선생님이 유서 속에서「메이지의 정신」이라고 부른 것의 실체이다. 메이지 시대는 변함없는 하나의 보편적인 윤리가 강력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 새로운 세대도 사실은 어디까지나 이 지배하에 살고 있었다. 메이지는 인간에게 죽을 권리를 주기보다는 죽을 의무를 부과했다. 때문에 선생님에게도 노기에게도 자살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고독한 개인이 「자기」라는 관념을 위해 자살을 결행한다는 것, 그것은 니체가 자신의 에세이에서 언급한 '죽어야 할 때 죽어라'라는 사상과 일치한다.[29] 다만 선생님은 죽어야 할 때를 발견해 내는 것이 과제였다. 죽어야 할 때를 발견하여 죽는 죽음은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며 약속이 될 수 있는 완성된 죽음이다. 이것이야 말로 자기 삶을 완성하는 성공적인 삶이다. 선생님에게는 자살하는 동기

---

28) 神谷正明、「「明治精神」と「先生」をめぐって-「こころ」小論-」(江古田文学), pp.180~189 참조
29) 프리드리히 니체, 「죽어야 할 때 죽어라」(『어느 쓸쓸한 날의 선택 자살』 북스토리 2003), pp.11~13 참조

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만일 K에 대한 죄책감과 고독, 인간의 원죄가 이유가 된다면 그가 살아온 삶은 K로부터 영원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된다.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는 시점이 아니라 정신의 조화와 죽음의 명분이었다.

선생님은 노기장군의 장례식날 밤, 호외를 손에 들고 자신도 모르게「순사다, 순사다」라고 외친다. 이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드디어 발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기의 순사보도는 선생님의 눈에는 어둡게 괴어있는 과거와 현재의 생(生)을 고백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비췄다는 것이다. 그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거대한 해방감을 끌어왔다. 흡사 노기장군이 이전의 그에게 빗장이 걸려 있던 문을 열어 준 것과 같았다. 발견의 결정적 순간에 선생님은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에게 갇혀 있을 필요가 없었다.

> 私は、今あなたの前に、それを明白に物語る自由を得たと信じます。しかしその自由はあなたの上京を待っているうちにはまた失われてしまう世間的の自由に過ぎないのであります。従って、それを利用できる時に利用しなければ、私の過去をあなたの頭に間接の経験として教えて挙げる機会を永久に逸するようになります。(中　十七)
> 나는 지금 당신 앞에 그것을 명백하게 말할 자유를 얻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당신의 상경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또 사라져버릴, 외부를 향한 자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하지 않으면 나의 과거를 당신에게 간접 경험으로서 가르쳐줄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중 17)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하지 않으면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유서의 언급에서 엿보이듯이 이용할 수 있을 때가 찾아왔다는 확신이 죽음으로의 절벽으로 발을 내딛는 결단을 선생님에게 촉구한 것이다. 노기장군의 순사는 선생님에게 있어 바로 죽어야 할 알맞은 때의 도래를 고한 사건이었다.

선생님은 죽음을 자유롭게 취사선택하는 권리를 개인으로서 주장한다. 자유와 독립과 자아로 가득 찬 현대에 있어서 개인주의 사상은 필연적으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즉 죽을 권리에 이른다. 죽음이 생(生)의 의미를 비춰내는 거울이고 죽음이 없는 생(生)의 완성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고유의 죽음을 성취하는 것에 의해 자기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권리이기도 할 것이다.

> 私はその時何だか古い不要な言葉に新しい意義を盛り得たような心持がしたので

す。(下 五十六)

나는 그때 어쩐지 낡고 불필요한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 56)

선생님은 「순사」라는 낡고 불필요한 단어에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메이지 정신」을 선택했다. 노기순사가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자신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선생님에게 해방감— K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악으로부터 자신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의미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선택한 죽음은 메이지 정신에 의해 선택되어진 것으로서, 스스로 인식하고 있던 것과 같은 자유가 아니었다. 선생님이 소유하고 있던 자유의 의미는 당시의 일본사회에서 수용되는 자유로, 선생님이 인식하고 있던 서구 근대사회의 자유 이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살아가던 메이지 사회는 개인에게 어떤 자유를 부여했을까. 당시의 일본사회에는 서구 사상이 유입되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지만, 역설적으로 메이지 시대는 이전 도쿠가와(德川)시대의 절대주의적 사회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교적·무사도적 엄격주의를 학교 교육 등을 통해 계승시키고 이용하려고 했다. 선생님은 새로운 메이지시대의 자유롭고 실용적인 개인주의를 익혔지만 구(舊) 메이지시대의 엄격주의적인 사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긴 자서전」을 10여일에 걸쳐 집필하고 자살한 선생님의 행위는 자기 의지로 고유한 죽음을 실현하려는 것으로써 자유를 획득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선생님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의지의 고유한 죽음이 아니다. K와 인간의 원죄로부터 자유하기위해 선택한 죽음이 결국 메이지사회에 귀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자살이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 자유롭게 삶을 그만두는 행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나 종교 또는 도덕에 의해 사람들은 때로 자살을 강요받았고, 전통과 관습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자살을 택해야 하는 희생자들이 속출했다.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에 처할 경우 그들이 신봉하는 철학, 도덕적인 세계관에 따라 자살을 강요당했다. 그런 강요로 말미암아 이들은 자유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했다.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을 자살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사회는 개인에게 자살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다. 두 사회 다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기 때문이다.[30]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자살의 이면에는 언제나 강요 내

30) 게르트 미슐러, 『자살의 문화사』, 2002, p.227

지 부자유가 있었다. 이것은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3.3. 선생님의 유서의 의미

3.3.1. 최초의 사회참여

始めは貴方に会って話をする気でいたのですが、書いてみると、かえってその方が自分を半然描き出す事が出来たような心持がして嬉しいのです。…(中略) …私を生んだ私の過去は、人間の経験の一部分として、私より外に誰も語り得るものはないのですから、それを偽りなく書き残して置く私の努力は、人間を知る上において、貴方にとっても、外の人にとっても、徒労ではなかろうと思いました。(下　五十六)
처음엔 당신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지만, 쓰고 보니 오히려 이쪽이 자신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쁩니다. …(중략)… 나를 낳은 나의 과거는 인간 경험의 일부분으로서 나 이외에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거짓 없이 써서 남기는 내 노력은 인간을 아는 데 있어 당신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헛수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 56)

위의 문장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다. 예전에 선생님은 개인의 과거를 하나의 사상으로 정립하여 타인에게 전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 나(私)는 진지하게 선생님의 인생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런 청년의 출현이「나 같은 인간이 세상에 나가 활동하는 것은 죄이다」라고 말하는 선생님으로 하여금「그것을 거짓 없이 써서 남기는 내 노력은 인간을 아는 데 있어 당신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헛수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결행한 자서전 집필자로 변모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いくら止そうと思って筆を擱いても、何にもなりませんでした。私は一時間経たないうちにまた書きたくなりました。…(中略) …その上私は書きたいのです。義務は別として私の過去を置きたいのです。(下　二)
아무리 그만두자고 생각하고 펜을 놓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또다시 쓰고 싶어졌으니까요. …(중략)… 그뿐 아니라 나는 쓰고 싶습니다. 의무와는 상관없이 나의 과거에 대해 쓰고 싶은 것입니다. (하 2)

私が筆を執ると、一字一劃が出来上がりつつペンの先で鳴っています。私はむし

ろ落付いた気分で紙に向かっているのです。(下　三)
펜을 드니 한 획 한 자가 완성되면서 펜 끝에서 소리를 냅니다. 나는 차분한 마음으로 종이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 3)

평소 거의 펜을 들지 않던 선생님은 나(私)에게 상경할 수 없다는 전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지를 쓰게 된다. 하지만 손에 펜을 쥐는 것으로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생겼던 것이다.「펜을 드니 한 획 한 자가 완성되면서 펜 끝에서 소리를 냅니다.」라고 언급하는데 거기에는 쓰는 것의 기쁨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쓰는 것에 의해 비로소 선생님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판연히 그려내는 것이 가능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속에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타인에게 참고가 되는 인간경험의 일부분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글로 남기면 고유의 죽음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을 것이다. 구두(口頭)로 과거를 고백하면 내(私)가 받는 인상은 설령 선명하고 강렬한 것이어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엷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그 후의 두 사람의 관계여하에 따라 변질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유서는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유의 죽음의 증언으로 후세까지 남는다. 죽음으로 절대적인 무게감을 획득한 자서전은 작품으로 승화하여 작가로서의 선생님의 생애는 고유의 빛을 획득하게 된다. 여기서 선생님의 궁극적인 욕망을 엿볼 수 있는데, 이 욕망은 후세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창조본능과 타인에게 자신을 의미 있게 남기고 싶어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욕구이다.

「자서전」이란, 현재의 조명을 받아 과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현재라는 조명을 통해 과거가 해석될 때 과거의 일들에는 의미가 부여된다. 지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과거를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축하는 셈이다. 자서전의 본질은 이의 효시가 된 아우구스티누스나 루소의 고백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적나라한 자기내면의 토로이다. 또한 사전적 의미 그대로 자신의 전 생애를 기술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애를 기술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기억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생님은 유서를 통해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다.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하여 유서가 아닌 자서전으로서 나(私)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다.

선생님의 창조의 본능과 사회참여의 욕구는 지식인으로서의 당연한 욕구로 보아야한다. 선생님은 후세에 무언가 남기려 하는 것을 자서전이라는 창조적인 형태를 통해 전달하려고 했다.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떠미는 내적 욕구와 입 다물라고 강요하는 외적 힘–도덕적 윤리에 의한 수치 사이에서 선생님이 발견해낸 것은, 이야기로서 자신의 과거를 풀어내는 창조성이었다. 자기 삶으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이

것은 선생님 내면에 잠재된 욕구이다. 자기가 당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남의 마음속에 심는 일이며 남에게 이해받았다는 환상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일이다. 그것은 또 「몇 천만 명이나 되는 일본인 중에서 단 한 사람, 당신에게만 내 과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라는 말로서 자신의 상처를 소재삼아 인간관계상 가치 있는 마음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련은 이런 식으로 타인과 공유하면 모습이 바뀌게 된다. 선생님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요구하는 나(私)에게 나중에 글로서 전한 것은 자신의 기억과 경험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여 나(私)에게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든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선생님이 나(私)에게 남기는 유서를 굳이「유서」라 칭하지 않고 「자서전」이라 칭하는 데서 선생님의 사회참여 욕구를 엿볼 수 있다. 선생님은 나와의 공존을 통해 사회와의 공존을 시도한 것이다. 자기 과거를 재현시킬 때, 선생님의 내면세계에서는 이것이 주요한 사명이 되었다. 자서전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수치를 건설적인 메시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유서가 과연 선생님의 진심을 어느 정도 담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개인의 과거가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은 당사자가 그것을 유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과거를 표현해야만 한다는 욕구는 사회가 용인하는 것만을 걸러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와 맞닥뜨린다. 선생님은 지독한 인간불신에 빠진 사람이다. 최후까지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숨겼던 선생님이 진실하지만 경험이 부족하여 아직 미숙한 나(私)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 선생님이기에 자신의 깊은 속내는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진실을 말하면 매혹을 깨뜨리게 되고 나(私)와 나(私)를 통해 선생님의 과거를 알게되는 사회에게 비판을 받기 마련이다. 선생님은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필연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유서를 통해 미화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선생님 일 개인의 인간불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선생님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작용하는 더 큰 힘을 깨닫지 못했다.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바로 그 힘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적절한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이며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모르고 있기도 한 마음이다.

3.3.2. 작품에서의 나(私)의 역할

자신에 관한 비밀이야기를 타인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행위다. 반면 자신의 비밀을 공표한다는 것은 사회적 참여이다. 선생님은 나(私)에게 유서를 남기면서 자신이 택한 한 사람과 비밀을 함께 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지만, 자서전을 공표함으로 인해 사회적인 참여까지 시도하려고 하였다. 선생님은 나(私)에게만 비밀을 공유하는 듯이 유서를 남겼지만 그것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내면의 고백이었다. 나(私)를 대표하여 후세대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려 한 것이다. 나(私)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해 비밀을 건네주면서, 이 비밀공유로 상대의 세계가 바뀌고 그가 나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형성하기를 바랬다. 이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인정해주고 의미부여해줄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내(私)가 선생님의 삶을 의미화시키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나를 만나고 나서부터 자살을 추상적이며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생님은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그의 과거를 타인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이 살아온 삶이 지니고 있던 커다란 오점을 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온전하고 앞뒤 맞는 인간으로 회복된다는 느낌을 받고 마치 자기 인간성의 찢어진 두 조각을 실로 꿰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예전의 선생님은 흔들림 없는 윤리의 보편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념위에 서서 일개인으로서 자기통일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연애를 통해 생각지도 못하게 들추어내진 자기의 추하고 열등한 에고이즘이 돌연히 그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닥쳐왔다. 이 강력한 경험은 그때까지 스스로를 윤리적이라고 믿고 있던 이상적 선생님과, 인간본연의 죄악감을 깨닫게 된 현실의 선생님으로 분열시켰다. 선생님은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 현실의 내가 이상의 나에게 순사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선생님은 자서전이라는 형태를 통한 고백 뒤에 놀라운 평정상태를 체험하게 된다.

> これでも私はこの長い手紙を書くのに、私と同じ地位に置かれた他の人と比べたら、あるいは多少落ち付いていやしないかと思っているのです。(下　三)
> 그래도 나는 이 긴 편지를 쓰는 데 있어 나와 똑같은 경우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쩌면 어느 정도 침착한 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 3)

선생님은 이 주관적인 느낌에 큰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안도감은 인간성 회복과 함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마친 뒤에 찾아오는 평온함을 가져다주었다. 이것은 나(私)에게 고백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관점을 달리해보면 나(私)라는 존재가 선생님의 고백을 끌어내는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実際ここに貴方という一人の男が存在していないならば、私の過去はついに私の過去で、間接にも他人の知識にはならないで済んだでしょう。(下　二)
실제로 여기에 당신이라는 한 남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내 과거는 끝끝내 나의 과거로서 간접적으로 남에게 알려지는 일 없이 끝났겠지요. (하 2)

이것은 바꿔 말하면,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나(私)를 통하는 것에 의해 항상 대상화되고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선생님은 항상 나(私)라는 별개의 존재의 눈을 통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의 고백은 또 나(私)라는 별개의 인간을 통해서 표현된다. 따라서 선생님의 고백은 절대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유롭게 자신만의 의미를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마음』에서 내(私)가 선생님의 고백을 성립시키고 동시에 독자들에게 선생님의 고백을 상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마음』의 테마는 당연히 나(私)의 눈을 통하는 것에 의해서 밖에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주제를 숙부의 선생님에 대한 배신과 선생님의 K에 대한 배신으로 상징된 「인간의 에고」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선생님과 소세키

4.1. 소세키의 사생관 형성과정

독자들은 작가가 과연 어디서 소재를 가져오는지, 또 그 소재를 통해 어떻게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설 중에는 무(無)에서 시작되는 자유로운 창조가 아니라 기성의 익숙한 소재들을 재가공한 소설들이 있다. 같은 모델에 기초한 소설들이라 해도 작가에게는 여전히 모델을 선택하고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를 통해 주인공 속에서 작가 자신을 보게 된다.

프로이트는 작가들의 삶 속에서 어린 시절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강한 체험은 대부분 작가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에 포함되어 있는 이전의 기억을 다시 일깨우는데, 이렇게 환기된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풀려 나온 욕망은 마침내 문학 창조 속에서 그 충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작가의 신변에 일어난 최근의 계기를 이루는 요소들만이 아니라 옛 기억의 요소들도

알아낼 수가 있다.[31] 이처럼 작가와 작품 속 등장인물 – 특히 주인공과의 관련들은 작품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작가의 삶과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소세키의 소설은 이야기 전개방식의 재미나 사상의 깊이가 내뿜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작가가 껴안고 있는 '어둠'이 작품 내에서 불가사의한 영역을 만들어내어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어둠'은 인간 존재의 심연에 가라앉아 있는 근원적 대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소세키의 심층에 깃들어 있는 기억들이 형성하는 '어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소세키 문학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 사라지지 않는 과거이야기이다. 소세키의 이 어두운 기억은 『마음』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필연적인 고독과 함께 죽음으로 향하는 시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작가 소세키의 근원적인 '어둠'을 만들어낸 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세키는 1867(慶応3)년 1월 5일, 현재의 신주쿠구(新宿區) 우시고메키구이초(牛込喜久井町)에서 5남3녀의 막내로 태어난다. 태어나자마자 고물가게의 수양아들로 보내지는데, 어느 날 고물가게를 지나던 그의 누나가 노점 바깥에 놓여있던 그를 불쌍히 여겨 다시 데려오게 된다. 그 후 소세키는 다시 양자로 보내졌다가 생가로 되돌아와 자신의 부모를 조부모로 여기며 살게 된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양자제도가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소세키의 양가(養家)에서의 어두운 경험은 그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소세키 생가는 나누시(名主)집안으로,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영위했었다는 것을 그는『유리문 안(硝子戸の中)』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 つい此間、うちの姉たちが芝居に行った当時の様子を聞いた時には驚いたのである。そんな派手な暮しをした昔もあったのかと思うと、私はいよいよ夢のような心持になるより外はない。(二十一)
>
> 바로 얼마 전 누나들이 연극을 보러 다니던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크게 놀랐던 것이다. 그런 화려한 시절도 있었나 생각하니 나는 점점 더 꿈같은 기분에 젖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22)

> こんな華やかな話を聞くと、私は果たしてそれが自分の宅に起った事かしらんと疑いたくなる。どこか下町の富裕な町家の昔を語られたような気のする。(二十一)
>
> 이런 화려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과연 그것이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을

31) 지그문트 프로이트,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2004, pp.143~157 참조

까 싶으면서 의아심이 생긴다. 어딘가 중심가 부잣집에서나 있었음직한 옛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되기 때문이다. (21)

私は錦絵に描いた御殿女中の羽織っているような華美な総模様の着物を宅の蔵の中で見た事がある。紅絹裏を付けたその着物の表には、桜だか梅だかが一面に染め出されて、所々に金糸や銀糸の刺繍も交っていた。これは恐らく当時の裲襠とかいうものなのだろう。(三十七)
나는 대감댁 하녀가 입음직한 화려한 무늬의 비단옷을 우리 집 장롱 속에서 본 적이 있다. 안감마저 붉은 비단인 그 옷에는 벚꽃인지 매화꽃인지 모를 꽃으로 온통 무늬져 있고 군데군데 금실은실로 뜬 자수도 섞여 있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의 가이도리(裲襠)라는 옷이었을 것이다.[32]

「어딘가 중심가 부잣집에서나 있었음직한 옛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나, 어렸을 적 기억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화려한 비단옷 등, 나츠메가(家)에 짙게 배어있는 에도(江戸)말기의 분위기는 소세키가 결코 영위할 수 없었던 꿈속 세계와 같은 것이었다. 오히려 소세키가 기억하고 있는 생가와 그 부모는 형에게 전해 들었던 생활과는 반대로 적적하고 쓸쓸한 곳이었다. 소세키가 세상물정을 알 즈음에는 유신(維新) 대 변혁기를 맞아 나누시(名主)제도가 폐지되었고, 그 후 부친 나오카츠(直克)는 경시청에 근무하며 장남은 개성학교(開城學校), 삼남은 남교(南敎)에 보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막내인 소세키는 부친에게 기대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아버지로부터 오히려 가혹한 취급을 받았다는 기억이 아직도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언급을 통해 그가 집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었는지 짐작할 따름이다.

어머니나 큰 형에 관한 추억을 제외하고 소세키는 옛집에 대한 기억을 「더없이 적적하고 쓸쓸해 보인다」고 회상하고 있다. 화려해야 했을 소세키가(家)는 장남의 폐병으로 인한 사망과 삼남의 방탕한 생활로 점점 몰락해갔던 것이다. 이시카와 테이지(石川悌二)는 나쯔메가(家)의 호적을 보면 삼남도 여러 번의 양자경험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33] 몇 번이나 반복된 양자관계는 삼남에게 적지 않는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소세키도 생가와의 관계가 심정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세키의 소설들을 살펴보면 가족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이나 친밀함이 나오는 예가 거의 없는 점을 보면 어느 정도 그의 유년기의 가

32)<4. 선생님과 작자의 관계>에서 인용하고 있는 『유리문 안』의 텍스트는 岩波文庫에서 2001년 출간한 문고판을 사용하였다.
33) 玉井敬之、「硝子戸の中」の一面 (漱石研究 第4号. 1995) , p.37 再引用

족에 대한 느낌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이러한 유년기의 기억은 소세키의 현재(소세키가 글을 쓸 당시)에까지 생생하게 이어져 있다. 소세키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의 과거는 점점 더 과거가 되어가지만, 그의 의식의 끝자락에 남아 작품 속에서 현재와 계속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집필할 즈음부터 소세키는 작품 속에서 자주 죽음을 언급하고 있다. 소세키는 1910년(明治 43) 6월, 『문(門)』탈고 후, 위장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퇴원 후 요양 차 머무른 수선사(修善寺)에서 심한 토혈을 하고 30분간 의식불명상태를 경험한 직후부터 그는 주변 인물들의 죽음을 차례로 조우하게 된다. 수선사(修善寺)의 위기상태에서 벗어나 귀경(歸京)한지 한 달 후, 그에게 오츠카 쿠스오(大塚楠緒)의 부고가 전해진다. 친우의 부인이기도 하면서 소세키의 숨겨둔 사랑의 대상으로 의심받기도 한 그녀의 죽음은 소세키 마음에 상당한 영향을 남겼을 것이다. 다음해에는 소세키의 5녀 히나코(ひな子)가 갑작스레 급사한다. 소세키는 이에 대한 심경을 자신의 일기에 적고 있다.

> 表をあるいて小さい子供を見ると比子が健康に遊んでいるのにひな子は何故生きてゐられないのかといふ不審が起る。
> 문밖을 걸어가면서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건강히 뛰놀고 있는데 히나코는 왜 살아있을 수 없는 걸까라는 의문이 떠오른다.
>
> また子供を作られば同じぢゃないかと云ふ人がある。ひな子と同じ様な子が生まれても遺恨は同じ事であろう。愛はパーソナルなものである。
> 또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히나코와 같은 모습의 아이가 태어나도 한스러운 마음은 같으리라. 애정은 개별적인 것이다. [34]

이 외에도 『유리문 안』에서 다루고 있는 지인들의 죽음과 그 자신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보면 생(生)과 사(死)에 관한 여러 가지 물음이 소세키에게 왔었을 것이다. 자신의 건강 상태로 보아도 충분히 죽음을 의식하고 있었을 그에게 죽음은 끊임없이 소세키의 사고(思考)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継続中のものは恐らく私の病気ばかりではないだろう。…(中略) …凡てこれらの人の心の奥には、私の知らない、また自分たちさえ気の付かない、継続中のものがいくらでも潜んでいるのではなかろうか。…(中略) …所詮我々は自分で夢の間

34)夏目漱石, 『漱石全集 第20券 日記·短篇 下』 岩波書店、1996、pp. 357~358

に製造した爆裂弾を、思い思いに抱きながら、一人残らず、死という遠い所へ、談笑しつつ歩いて行くのではなかろうか。(三十)
계속 중인 것은 내 병만이 아닐 것이다. …(중략)…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모르는, 또 자신들조차 깨닫지 못하는 계속 중인 것들이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닐까. …(중략)… 결국 우리들은 제각기 꿈속에서 제조한 폭탄을 소중히 껴안고 죽음이라는 먼 곳으로 담소해 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30)

소세키에게 있어 죽음은 이미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여 그려지는 대상이었다. 『마음』에서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1년 뒤에 쓰여진 『유리문 안』에서도 주요테마로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독특한 방법으로 이 붙잡을 수 없는 죽음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4.2. 『마음』의 숨겨진 의도
- 메이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선생님의 유교적·무사도적 윤리는 메이지 정부가 절대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에도의 봉건체제를 통치이념으로서 계승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에 의해 등장한 신(新) 정부는 절대주의적 사회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전(前) 시대의 정신적 유산 가운데 유교적·무사도적 엄격주의를 학교교육 등을 통해 계승시켜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였다. 메이지 시대 속에서 살았던 선생님은 정부의 의도대로 메이지 정신의 지배 하에서 유교적·무사도적 엄격주의를 몸에 익히게 된다.

「本当をいうと、私は精神的に癇性なんです。それで始終苦しいんです。考えると実に馬鹿々々しい性分だ」といって笑った。精神的に癇性という意味は、欲にいう意味か、または倫理的に潔癖だという意味か、私には解らなかった。(上 三十二)
「사실은 난 정신적으로 결벽증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항상 괴롭습니다. 생각하면 정말이지 어리석은 성격이지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정신적으로 결벽증이라는 의미가 흔히 말하는 신경성이라는 의미인지 또는 윤리적으로 결벽하다는 의미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상 32)

私は倫理的に生まれた男です。また倫理的に育てられた男です。その倫理上の考えは、今の若い人と大分違った所があるかも知れません。しかしどう間違って

も、私自身のものです。間に合せに借りた損料着ではありません。(下 二)
나는 윤리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길러진 사람입니다. 그 윤리상의 사고방식은 지금의 젊은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르건 내 자신의 것입니다. 급하게 아무대서나 적당히 빌려온 옷이 아닙니다. (하 2)

선생님은 선천적으로 신경질적이었지만, 집에 상당한 재산이 있었기에 느긋한 성품으로 자랄 수 있었다. 한편으로 「나는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길러진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엄격한 도덕교육을 통해 윤리적 결벽을 몸에 익혔다. 그러나 선생님은 위와 같이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그 「윤리상의 사고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단지 선생님은 자신 안에 도학(道學)의 도덕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남아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선생님은 1870년대 중반(明治 8,9년경)에 태어났으리라 추정된다. 선생님이 초등교육(小學校)을 받은 1870년대 후반(明治10년대) 이후에는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35]의 전국적인 발전을 저지하기위해 교육의 국가통제가 강화되어있던 시기로, 자유주의적인 내용을 포함한 교육령(明治12년 포고(布告))이 개정되었다. 1881년(明治 14년)의 소학교교칙강령(小學校敎則綱領)은 수신(修身)을 교과의 제일 첫 번째로 두었다.

선생님이 중학생이었을 무렵에는 1889년(明治 22)의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 다음해 1890년(明治 23)의 교육칙어(敎育勅語)[36]의 발포(發布)가 있었다. 교육칙어는 제국헌법의 신린적(臣隣的)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교육에 주입하여 전 국민에게 침투시키기 위해 교부(交付)되었다. 칙어(勅語)는 천황에의 충성과 부모에의 효를 도덕의 근본으로 하여, 국민에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천황을 위해 생명을 던져 싸우라고 하는 국가에 충성을 맹세시키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일본의 전통적인 사상과 유교와 무사도가 이용되어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신민도덕 속에 집어넣

35) 明治絶代主義에 대한 민주주의적 요구를 지닌 정치운동. 1880년(明治 13)의 국회 기성동맹이 척 단체적 국회개설을 요구. 정부가 집회조례(集會條例)로 탄압했으나 민권운동은 福沢諭吉 등의 계몽운동과 더불어 끝내 버티어 냈다. 특히 1881년의 북해도개척사관유물불하사건으로 정부가 후퇴, 1890년(明治 23)에 국회개설을 공약했으나 자유당(自由党)이 앞장선 자유민권운동의 탄압에 나서 후쿠시마(福島), 가바야마(加波山), 치지부(株父)사건 등으로 민권운동을 사분오열 시켰다. (日本人과 日本文化의 理解. p.338)

36) 1890(明治23) 발포된 이 칙어를 흔히 유교적 도덕교육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지만 절대주의 군주제를 노린 메이지헌법이 공포된 이듬해 나온 이 교육칙어는 천황에의 충성이 국민도덕의 기본이라고 강조한 점에 문제가 있었다. 유교적 도덕사상에 근대적 국가주의 사상르 덧붙인 이 칙어는 충효를 강조하면서 천황제와 봉건적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한 국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군국주의체제가 확립되면서 더욱 국민의 정신생활의 주축으로 신성화됐었다. 그래서 근대일본은 정치와 도덕의 두 세계에서 최고 권위자로서 군림하는 양처(良妻)동물이라는, 유럽의 군주제와는 아주 다른 독특한 성질을 지닌 천황제와의 고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됐던 것이다.(日本人과 日本文化의 理解. p.330)

어져 있었다. 선생님은 이 시대 교육의 영향을 받고 자랐다. 선생님은 고교시절에 「자유, 독립, 자아」를 존중하는 서구의 근대사상을 배웠으나 유교적·무사도적 정신이 한층 강화됐던 이 시기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다.[37]

K도 선생님과 같이 무사와 닮은 아버지와 교육칙어 발포 전후의 소학교와 중학교 교육에 의해 유교적·무사도적인 윤리를 배웠고, 그 후 「자유와 자립과 자아」를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정신을 갖게 되었다. 이 점에서는 두 사람은 같은 세대의 인간으로서 공통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작가 소세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메이지 정신은 사회의 구속력을 상징한다. K와 선생님은 자유, 독립, 자아를 존중하는 개인주의정신을 확립하려고 고군분투하면서도 유교적·무사도적 정신의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다. 선생님이 확립하려는 개인주의 정신은 자유를 희망하면서도 결국 메이지 정신에 순사하는 반(反)자유로 결론을 맺는다. 자유를 희망하면서 메이지 정신에 순사하는 것은 결국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세키는 이것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요시 유키오(三好行雄)는 소세키를 일본 근대의 투철한 비판자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소세키의 삶과 작품에서 국가 권력에 대한 선구적인 비판과 저항을 읽어낸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도 국민작가가 오히려 국민과 국가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소세키는 메이지 정신을 상징하는 메이지 천황의 서거에 대해서도 당시 일본 국민들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달리 비교적 개인적이며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임을 그의 일기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다.

> 晩天子重患の号外を手にす。尿毒症の由にして昏睡状態の旨報ぜらる。川開きの催し差留られたり。天子いまだ崩ぜず。川開を禁ずるの必要なし。細民これがために困るもの多からん。當局者の没常識驚くべし。演劇その他の興行もの停止とか停止せぬとかにて騒ぐ有様也。天子の病は万民の同情に価す。しかれども万民の營業直接天子の病気に害を与えざる限りは進行して然るべし。當局これに對して干渉がましき事をなすべきにあらず。(七月二十日、土) [38]
>
> 저녁 때, 천황이 중환이라는 호외를 받아 보았다. 요독증으로 인한 혼수상태라는 내용이었다. 가와비라키(川開き-그해의 강 놀이 개시를 축하하여 냇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연중행사)의 개최가 중지되었다. 천황은 아직 붕어하시지 않았다. 가와비라키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 영세민은 이 때문에 곤란한 것이 많다. 당국의 몰상식에 놀라울 따름이다. 연극이외의 행사도 정지하느냐 마느냐로 소

37) 水川隆夫、『夏目漱石「こころ」を読みなおす』, 平凡社新書, 2005, p.94
38)夏目漱石、『漱石日記』, 岩波書店, 1990, p.192

란스러운 듯하다. 천황의 병환은 국민의 동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국민의 영업이 직접적으로 천황의 병환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진행되는 것이 옳다. 당국은 이에 대해 간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소세키의 일기에서는 천황의 죽음에 대한 일반국민이 갖는 충성심이나 귀속감 보다는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고가 엿보인다. 이것은 소세키가 메이지정신에 일체화된 국민의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의식의 소유자임을 보여준다.

소세키는 1914(大正3)년 가을, 학습원에서의 유명한 강연 <나의 개인주의>에서 그가 자기를 자각하는데 이르렀던 경로를 회고하고 있다. 그는 유학지 런던에서 일본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에 의해 자기본위(自己本位)라는 입장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런던에서의 경험은 하나의 계기에 지나지 않았다. 소년기 이후, 그의 감수성은 타인의 외측으로부터의 조종에 대해, 또 틀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규율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 소세키는 개성의 발전을 팽개치는 재력이나 권력, 오랜 도덕을 증오했다. 런던에서 본 영국인의 자율성은 소세키에게 있어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그 자율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기의 개성에 어울리는 일을 하면 된다는 각오를 굳힌다. 이후, 자기본위로 산다는 지침, 즉 외측으로부터의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개성을 발전시켜나간다는 지침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소세키를 이끌어 갔다.

소세키의 개인주의는 철저한 자기본위의 자각과 메이지의 보편적 윤리와의 사이에서 생긴 다소 불완전한 조산아이며 오히려 구체적인 사회적 개인의 부정위에 선 개인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사는 것을 합리화시킨다. 그것은 강렬한 자기주장이 아닌, 정적(靜的)인 자기안정을 위한 계율이다. 또한 그의 개인주의는 본래 수평적인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실은 그 이상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안정된 지위를 지키려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국가와의 상대적인 관계가 고려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개인주의의 도덕이 국가주의의 도덕보다 우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더 하위의 도덕에 아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39]

<나의 개인주의>는 학습원 학생 앞에서 강연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자율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 것인가를, 그리고 완전한 자유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연 직전에 『마음』을 완성한 소세키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소세키는 학생들 앞에서 성실했지만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세키가 그의 사상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다른 그 무엇보다 소설을 이용하리라는 것을 어

39) 猪野謙二、「「心」におけて自我の問題」(『漱石作品論集成〔第十券〕こゝろ』 おうふう 1994), p.49

렵지 않게 그의 작품 여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연에서는 말하지 않은 현실의 깊은 층을 그는 자신의 소설 『마음』에서 드러내고 있다.

「선생님」이라는 인물을 통해 메이지 시대를 새롭게 고찰하고 있는 소세키는 선생님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나(私)에게 「윤리상의 사고방식은 지금의 젊은 사람과 다르다」라고 한 말에서 메이지 시대에 관한 시각을 언뜻 내비추고 있다. 이는 『마음』이면에 있는 숨겨져 있던 또 하나의 주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듯이 드러난 부분이다. 작품 속에서 확연히 드러내지 않고 있던 「지금의 젊은 사람과 다른 윤리상의 사고방식」을 작가 소세키는 『마음』외에서 설명하고 있다.

소세키는 1911(明治44)년 8월18일, 오사카(大阪)시 공회당(公會堂)에서, <문예와 도덕>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옛날의 도덕과 현대의 도덕의 특징을 비교했다. 그 비교는 학문적, 체계적인 곳에 바탕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윤리적으로 자란 소세키 자신의 절실한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

소세키는 「옛 도덕」을「도쿠가와(德川)시대의 도덕」이라 부르며, 「충신이나 효자나 정숙한 여인에게서 일종의 완전한 이상적인 형태를 만들어 그 형태를 표준으로 삼아, 그것을 우리가 노력한 결과 실현가능한 것」이라 여기고, 「전부 완전한 규범을 앞에 정해두고 우리들 같은 미흡한 자도 의사여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이 규범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교육법, 도의를 세우는 방식」이라 하였다. 이러한 윤리관이 개인에게 끼친 영향은「무슨 일이 있어도 이 규범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한 경지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내부의 자극이나 외부의 편달(鞭撻)이 있기 때문에 모방이라는 의미는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 대신 생활 전체로 보면 정신적으로 향상시키고 풍부한 기개의 강한 용기를 고무시키는 듯한 일종의 감격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고 한다.

「옛 도덕」은 자신의 이익 전부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는 듯한 이타적 견해도 내세우지만, 한편으로 개인에 대한 일반 윤리상의 요구는 충분히 가혹한 것으로「개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작은 잘못이라도 용서되지 않고 바로 목숨과 연관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배를 갈라서 사죄를 했다. 이를 소세키는 「강요당한 할복」이라 주장하며,「사회제도가 상당히 악랄하고 가혹하기에 살아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으니 무턱대고 쉽게 생명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대비하여 소세키는「현재의 도덕」을 「유신(維新)이후 44~4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고 「인간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덕에 이른 사람이라도 어딘가에 약점이 있다고 남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가 윤리적 동물인 우리에게 인간다운 덕을 요구하고 그것을 수용함으로서 완전(完全)이라

든가 지극(至極)이라는 이상적인 요구를 점차 철회해 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이론관의 개인에 대한 영향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을 행위상으로 노출해서 스스로를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도 비난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소세키는「우리들과 같은 연배의 과거에 비하면, 현대의 젊은이는 상당히 자유로운 듯이 보입니다. 또 사회가 건강한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라고 술하고 있다. 결국, 「우리들은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듯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도덕도 자연히 개인을 본위로 하여 세워지는 듯이 되어 있다」고 본다.[40]

K는 정진을 위해 육체를 혹사하거나 도(道)를 위해 육체를 채찍질했던 고행자들을 존경하는 금욕주의자이다.「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한다」고 생각한 K는 설사 욕망을 떠난 것이라 해도 완전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만들어 그것을 이루려고 정진한다는 점에서 그는「옛 도덕」의 체현자였다. 그러나 그가 본받으려 하는 완전한 일종의 이상적 형태는 지배계급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도덕」과 통하는 그의 개인주의가 있었다. 하지만 K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결국 옛 도덕이었다. 이는 선생님을 통해 더욱 극명해지는데, K와 달리 선생님은「현재의 도덕」을 이상화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K와 마찬가지로 「옛 도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결과로 끝을 맺는다.

4.3. 작가의 나(私)에 대한 의미부여

『마음』은 나(私)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로, 형식적인 주인공은 나(私)이다. 논자는 선생님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함으로써 나(私)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선생님의 고백을 듣기 전부터 나(私)는 선생님에게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이를 통해 선생님의 고백에 내가 더더욱 영향을 받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생님을 뛰어넘게 된다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선생님의 고백을 접한 후의 내(私)가 그려져 있지 않다. 이에 기초하여 보면, 작가는 결론을 맺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마음』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음』의 주인공 속에는 작가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작품이 미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세키가 『마음』을 쓸 당시에는 아직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는 추측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후 『명암(明暗)』까지 이어지는 시간동안에 그의 사상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이 당시

40) 水川隆夫、『夏目漱石「こころ」を読みなおす』, 平凡社新書, 2005, pp.124~127 참조

에는 소세키 자신이 과거의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가설에 따른다면, 나(私)야말로 형식적인 주인공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내(私)가 진정한 주인공이라면 나(私)는 현재의 소세키를 상징하며, 선생님은 과거의 소세키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마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더 나아간다면, <선생님과 유서>의 장(章)이 궁극적인 귀결이 아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혹은 작가의 발상에 그러한 계기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작가의 본래의 구상을 파악해 볼 것도 없이 나(私)라는 인물은 이 작품에서 선생님과 다른 독자성(獨自性)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의 연구결과로 알 수 있다.

나(私)는 선생님에게 있어서 일단은 타자(他者)의 입장에 놓여있다.

> 先生に限らず、奥さんに限らす、二人とも私に比べると、一時代前の印章因襲のうちに成人したために、そういう艶っぽい問題になると、正直に自分を開放するだけの勇気がないのだろうと考えた。(上　十二)
> 선생님이나 사모님이나 두 사람 다 나에 비하면 한 시대 전의 구습이 남아 있는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랑 문제에는 솔직하게 자신을 내보일 만큼의 용기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상 12)

> 今の青年の貴方がたから見たらなおそう見えるでしょう。(下　十四)
> 지금 시대의 청년인 당신이 보면 더욱 그렇게 보이겠지요. (하 14)

> 今と違った空気の中に育てられた私どもは、学生の身分として、あまり若い女などと一所に歩き廻る習慣を有っていなかったものです。(下　十七)
> 지금하고는 다른 공기 속에서 자란 우리에겐 학생 신분으로 젊은 여자와 함께 걷는 관습은 없었습니다. (하 17)

나(私)는 선생님이 현대적이 아니라는 점을, 한 시대 전의 구습이 남아 있는 시대에 자랐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선생님 또한「지금 시대의 청년인 당신이 보면」이라든가, 「지금과 다른 공기 속에서 자란 우리들」이라고 언급하며 나(私)를 확실히 의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私)는 단순히 선생님에게 있어 타자(他者)로서만이 아닌, 확실히 서로 세대의 차이점을 의식시키는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他者)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41]

---

41) 越智治雄、『こゝろ』(玉井敬文·藤井淑禎　編, 『漱石作品論集成〔第十券〕こゝろ』　おうふう 1994), p.77

소설에서의 현(現)시점의 나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다. 당시의 자기 자신과 선생님을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회상하고 있고, 또한 선생님의 내면을 마치 그 자신인 듯 간파하는 시각을 띄고 있는 점을 보아 소설 속 현재의 나(私)는 당시의 선생님에 가까운 나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소세키는 메이지 종언시라는 유동기적·과도기적 지점에 섰던 때의 자신이, 자기 자신의 과거와 대치하여 자기의 청년기의 풍모(風貌)를 『마음』의 두 등장인물에게 짊어지게 한 것이다. 여기에『마음』 창작의 원점이 있는 듯하다.

선생님의 죽음은 어쨌든 간에 역시 메이지의 윤리, 이른바 옛 도덕이 그 보편적인 지배를 확실히 하고 있던 시대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소세키가 현실의 생을 부정하고 죽음을「삶보다 고귀하다」고 긍정하면서도 더욱 선생님의 그와 같은 작위적인 죽음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그가 선생님의 죽음을 이미 과거의 것으로 여기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혹은 선생님의 죽음이야말로 하나의 가교(假橋)가 되어 소세키를 비로소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소세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을 통해 비춰진 자기의 사고(思考)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제2의 인생출발이 가능했던 것이다. 나(私)는 소세키가 과거의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도약판이었다.

소세키는 이제까지와 같이 자신이 직접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를 통해 말하는 것에 의해 오히려 문제를 한층 더 깊게, 게다가 객관적으로 추구하는 형상을 취할 수 있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나 그 밖의 『마음』이전에 쓰여진 소설들에서는 작가 자신의 모델이 주인공이자 비평가로서 자신이 직접 소설에 개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주인공이자 비평가 역인「선생님」을 두고, 또 다른 객관적 시선인「나(私)」를 둠으로써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비평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 소세키는 비로소 자기를 바라보는 시점을 획득한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소세키의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깊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주인공에게 짊어지게 한 작자 자신의 고독의 문제가 한층 깊게, 그 극한까지 추구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기 체험은 일단 자신에게서 떼어내어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서 비로소 진실하고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를, 또 자기의 체험을 엄격하게 떨어져서 관통해보는 시선이 필요한데, 여기에 나(私)라는 인물설정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소세키가 자기의 체험을 엄격하게 추구하고, 게다가 객관화할 수 있던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러한 체험을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마음』의 선생님은 자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선생님의 체험은 나를 통한 것에 의해 미래를 살아갈 수 있었다. 그것은 동시에 작가 소세키가 스스로의 과거를 뛰어넘은 것을 의미한 것이기도 하다.

결 론

이제까지 본 논문의 중심테마인 죽음의 문제를 선생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생님의 죽음은 그의 인간상의 복잡함과 다양성으로 인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의 죽음의 이유 또한 한 가지로 결론지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인간이 타인의 내면을 일방적으로 생성하거나 자유자재로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는 선생님의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을 죄책감과 메이지 정신에의 순사로 보았다. 이것은 개인의 에고, 지식인의 고뇌 등 개인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선생님의 K에 대한 죄책감으로 야기된 죽음에 관한 문제를 K의 죽음에 관한 원인분석에서부터 작가가 의도하는 작품 이면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까지 다루어보았다.

첫 번째로, <1장>에서는 작가가 작품의 제목으로 선택한 '마음'이 암시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 소설의 중심사건인 자살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인간의 마음은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로 이루어져있으며 인간의 습관이나 행동은 이 무의식세계에 의해 지배받는다. 무의식적인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무의식 속의 마음을 포괄해야만 한다.『마음』에서는 죽음의 이미지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특히 '자살'이라는 형태를 띄고 그려진 죽음이 세 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어떤 행위도 자살만큼 다른 인간과의 무관계성을 보여 주는 것은 없다. 서양과 동양을 통틀어 '자살'은 자기말살의 결단을 내리는 개인적 자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내부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는 내부의 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원인으로서 K에 대한 죄의식이 하나의 계기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한쪽 면에서는 메이지천황의 죽음에 의해 상징되는 메이지정신의 종언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외부의 사건과 내부의 사건이 선생님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2장>에서는 선생님의 K에 대한 배신문제를 선생님과 K를 둘러싼 상황과 각자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면서, 그것이 선생님의 죽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선생님과 K는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핍감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고향을 상실한 이들은 결핍감을 고독으로 해석하며, 무의식중에 하숙을 통해 이 결핍감을 채우려고 한

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선생님과 K는 아가씨를 사모하게 된다. 그러나 선생님은 아가씨에 대한 마음을 자신에게 고백한 K를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기 시작한다. 이 위협적인 느낌은 K에게 단순히 사랑하는 대상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뛰어넘어, 자신이 성취한 새로운 소속처에서 또다시 떠밀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선생님에게 가져다주었다. 집단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상상만으로도 그런 무서운 배척을 피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게 만든다. 이것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인격과는 상관없으며, 그가 처한 당시 상황과 환경적 배경이 선생님을 이제껏 살아온 삶이나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는 맞지 않는 「배신」이라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

세 번째로, <3장>에서는 선생님의 자살에 있어「시대」를 직접적인 영향자로 바라보았으며, 메이지 정신을 개인의식의 외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로서 파악했다.

K에 대한 죄책감에서 출발한 죽음에 관한 상념이 인간 본연의 악을 깨닫게 되면서 선생님은 그 죄책감에서 해방된다. 그러나 K로부터 해방되었으면서 굳이 선생님이 자살을 택하게 된 것은 K와의 일체화로 자살욕구가 더 깊어진 것과, 메이지 사회가 선생님의 죄를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자유와 독립과 자아」를 추구하는 선생님은 K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그리고 K를 뛰어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의미화 하기위한 대상이 필요했고 때마침 노기순사로 인해 메이지 정신에의 순사라는 합당한 대상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선생님은 죽음을 하나의 기회로 인식하며 자신의 삶을 완성하려 한려고 한다. 여기서 논자는 선생님이 죽은 사람은 항상 존경받고 죽어서도 완전히 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일본적인 죽음의 의미를 생각했으리라 추측하며 유서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일평생 사회에 나갈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를 격리시켜왔던 선생님이 유서를 통해 최초로 타인에게 자신을 의미 있게 남기고 싶어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욕구를 내비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소세키가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또 하나의 의도로서 메이지 정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살펴보았다.

메이지 시대는 유신(維新)에 의해 지배자는 바뀌었지만 절대주의적 사회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전(前)시대의 윤리를 학교교육 등을 통해 계승시키려고 하였다. 선생님과 K는 자유, 독립, 자아를 존중하는 개인주의정신을 확립하려고 하면서도 메이지 정신이 요구하는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다. 자유를 희망하면서도 메이지 정신에 순사하는 것은 결국 그 정신에 귀속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을 소세키는 나(私)라는 인물을 내세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만일 선생님의 '자살'이『마음』에서 일어난 최초의, 또는 유일한 죽음이었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

나 선생님의 죽음이 『마음』에서 그려진 세 번째 ‘자살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책임이 ‘무엇에’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單行本>

게르트 미슐러, 『자살의 문화사』, 시공사, 2002

권혁건, 『일본근대소설연구 — 나쓰메 소세키를 중심으로 —』, 학사원, 1996

권혁건,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와 한국』, 제이앤씨, 2004

마르탱 모네스티에, 『자살』, 새움, 2003

문화이론연구소 編, 『日本人과 日本文化의 理解』, 보고사, 2003

미나미 히로시, 『일본인론(上) — 메이지(明治)로부터 오늘까지 —』, 소화, 1999

미나미 히로시, 『일본인론(下) — 메이지(明治)로부터 오늘까지 —』, 소화, 1999

박경리,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박경리 강의노트』, 현대문학, 1995

A.알바레즈, 『자살의 연구』, 청하, 1987

에밀 뒤르켐, 『자살론』, 청아출판사, 1997

움베르트 에코,『'장미의 이름' 창작노트』, 열린책들, 2002

유금호, 『韓國現代小說에 나타난 죽음의 硏究』, 동천사, 1988

유상희, 『나쓰메 소세키 연구』 보고사 2001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1999

이영돈, 『KBS특별기획 다큐멘터리 — 마음』 예담 2006

조영석, 『나쓰메 소세키의 문학세계』 보고사 2001

주정관 譯, 『어느 쓸쓸한 날의 선택 자살』 북스토리 2003

줄리아 크리스테바, 『검은 태양-우울증과 멜랑꼴리』동문선 2004

지그문트 프로이트, 『예술, 문학, 정신분석』열린책들 2004

필립 짐바르도, 『루시퍼이펙트』 웅진지식하우스 2007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7

小森陽一, 『漱石を読みなおす』 ちくま新書 1995

小森陽一 · 中村三春 · 宮川健郎 編, 『総力討論 漱石の『こころ』』 翰林書房 1996

夏目漱石, 『漱石日記』 岩波文庫 1990

夏目漱石, 『漱石全集 第20券 日記·短篇 下』 岩波書店 1996

夏目漱石, 『こころ』 岩波文庫 2001

夏目漱石, 『硝子戸の中』 岩波文庫 2002

土居健郎, 『「甘え」の構造』 弘文堂選書 1987

松岡陽子マックレイン,『孫娘から見た漱石』　新潮選書　1995
水川隆夫,　『漱石「こゝろ」の謎』彩流社　1994
水川隆夫,　『夏目漱石「こころ」を読みなおす』　平凡社新書　2005
三好行雄　編,　『「鑑覚日本現代文学」⑤　夏目漱石』　角川書店 1984
三好行雄　編,　『漱石文明論集』　岩波文庫　1990
酒井英行,　『漱石　その陰翳』　有精堂　1990
作田啓一,　『個人主義の運命ー近代小説と社会学ー』　岩波新書　1983
鈴木貞美　編集,　『〔生命〕で読む20世紀日本文芸』　至文堂　1996
江藤涼　編,　『朝日小事典　夏目漱石』　朝日新聞社
石原千秋,　『「こころ」大人になれなかった先生』　みすず書房　2005
千谷七郎,　『漱石の病跡 ―病気と作品から―』 勁草書房　1979
加藤周一・M. ライシュ 著,　『日本人の死生観　上』　岩波新書　1983
加藤周一・M. ライシュ 著,　『日本人の死生観　下』　岩波新書　1983
平川祐弘 ・ 鶴田欣也 編,　『漱石の『こゝろ』どう読むかどう読まれてきたか』新曜社 1994

<論文集>

권혁건 編,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文学研究 創刊号』 제인앤씨　2001
권혁건 編,　『나쓰메 소세키 작품 『마음(こころ)』연구』제이앤씨　2003
學燈社、　『國文學』　學燈社　1994
小森陽一・石原千秋、　『漱石研究　第5号』　翰林書房　1995
小森陽一・石原千秋、　『漱石研究　第6号』　翰林書房　1995
玉井敬文・藤井淑禎　編,『漱石作品論集成〔第十劵〕こゝろ』　おうふう　1994
安岡章太郎・小森陽一・石原千秋、『漱石研究　第４号』　翰林書房　1995
江古田文学会、　『江古田文学　第52号』　江古田文学会　2003
学術文献刊行会、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２　平成９(1997)年』
学術文献刊行会、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２　平成11(1999)年』
学術文献刊行会、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２　平成14(2002)年』
学術文献刊行会、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２　平成15(2003)年』

<論文>

김복자, 「『こころ』における死生観に研究 =『마음』에 있어서의 사생관 연구」경상대 대학원　2003

성지현, 「夏漱目石의 『心』고찰 : 에고이즘을 중심으로」전북대 교육대학원 2007
尹 一, 「夏漱目石の『こころ』―Kの死と「心」の問題―」 日本學報 2004
정승아, 「나쓰메소세키(夏漱目石)의 「こころ」론 : 등장인물들의 염세주의를 중심으로」영남대 교육대학원 2006
조영석, 「'漱石'文學의 倫理觀에 관한 硏究 -「こころ」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8
조영석, 「소세키의 『마음(こゝろ)』연구 - 작중인물의 無名性과 「선생님과 유서(先生と遺書)」의 문제를 중심으로」 韓國日語日文學會 2006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전공	학 번	20058229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 최 설 연 한문 : 崔 雪 延 영문 : Choi Seol-Yeon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쌍용아파트 101동 106호				
연락처	010) 9430-4849 E-MAIL: kubotakuro@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漱石『마음(こころ)』연구 – 선생님의 죽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 영문 : A Study on the『kokoro』– Centering on Death of Teacher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 년 7 월 일

저작자 : 최 설 연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